

碩士學位論文

濟州地域 庶民金融機關의 競爭力 提高方案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 財務管理 專攻

李 錫 鎬

碩士學位論文

濟州地域 庶民金融機關의 競爭力 提高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鍾 元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 財務管理 專攻

李 錫 鎬

2002

濟州地域 庶民金融機關의 競爭力 提高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鍾 元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 年 6 月 日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 財務管理 專攻



李錫鎬의 經營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2 年 6 月 日

委 員 長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제 2 장 한국의 금융제도와 서민금융기관	5
제1절 금융제도의 특징	5
1. 금융구조	5
2.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7
제2절 금융기관의 역할 및 현황	9
1. 금융기관의 역할	9
2. 금융기관의 현황	11
제3절 예금은행과 서민금융기관	14
1. 통화금융기관으로서의 예금은행	14
2. 비통화저축기관으로서의 서민금융기관	20
3.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의의 및 특성	27
제 3 장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현황 및 실태	33
제1절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여·수신현황	33
1.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현황	33
2.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여·수신 현황	35
제2절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실태	39
1. 성장성 현황	39
2. 수익성 현황	41

3. 생산성 현황	45
4. 자산건전성 현황	46
제 4 장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	49
제1절 표본자료 및 연구모형	49
1. 표본자료	49
2. 연구모형	50
제2절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분석	54
1. CAMEL모형을 이용한 경쟁력 분석	54
2.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과 질적요인분석	65
3. 분석결과	76
제3절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	79
1.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	79
2.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제고방안	80
3. 농·수협 상호금융의 경쟁력 제고방안	82
제 5 장 결 론	83
제1절 요약 및 결론	83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85
참 고 문 헌	87
1. 국내문헌 및 논문	87
2. 외국문헌 및 논문	89
ABSTRACT	9

표 목 차

<표 2-1> 한국·미국·일본의 금융연관비율 비교	6
<표 2-2> 한국의 금융자산 구성형태	7
<표 2-3>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21
<표 2-4>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 현황	24
<표 2-5>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현황	26
<표 3-1> 연도별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수	35
<표 3-2> 도내 금융기관의 여·수신 비중	36
<표 3-3>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 현황	38
<표 3-4>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 현황	38
<표 3-5>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ROA 비교분석	42
<표 3-6> 금융기관별 점포 및 직원 1인당 평균 수신액 비교	45
<표 3-7> 제주지역 금융기관별 생산성 비교	46
<표 3-8>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현황	48
<표 3-9> 예금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및 동 비율 추이	48
<표 4-1> 경영분석 모형	51
<표 4-2> 평가부문별 평가항목	53
<표 4-3> 평점별 평가등급	54
<표 4-4> 부문별 평가항목과 등급기준	55
<표 4-5>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주요항목별 평균현황	57
<표 4-6> 자본적정성에 대한 경쟁력정도 비교	58
<표 4-7> 자산건전성에 대한 경쟁력정도 비교	59
<표 4-8> 수익성에 대한 경쟁력정도 비교	60
<표 4-9> 유동성에 대한 경쟁력정도 비교	61

<표 4-10> 경영관리능력에 대한 경쟁력정도 비교	62
<표 4-11>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자동화기기 설치 추이	68
<표 4-12> 도내 서민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68
<표 4-13>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금융디지털화 수준	69
<표 4-14> 질적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결과	72
<표 4-15> 경쟁력을 좌우하는 질적요인	72

그림 목 차

<그림 2-1> 한국의 금융기관	13
<그림 3-1> 도내 금융기관 예·수금 및 대출금구성 현황	37
<그림 3-2>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 증가율	40
<그림 3-3>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 증가율	41
<그림 3-4>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ROA 추이	43
<그림 4-1> 연구모형	51
<그림 4-2> 이상적인 경쟁력 도형 및 경쟁력 실태도	64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금융환경의 변화는 크게 금융의 자유화·개방화·통합화·증권화·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및 철폐에 따른 금융자유화의 진전은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여 금융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금리의 자유화는 금융기관들 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 및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은 금융산업의 업무형태와 조직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금융산업을 단순히 자금의 중개기능을 넘어 정보집약형 장치산업으로 변모시켰으며, 금융의 국제화를 가속화시켜 세계금융시장의 통합화 및 일체화 내지는 동조화현상 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추세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도 대형화를 바탕으로 구조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거대 시중은행의 통폐합과 금융지주회사 도입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금융수요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권간의 업무 제휴가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형태가 직접금융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의 탈 은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이로 인한 대출수요의 감소는 예대마진폭을 줄여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금리, 환율, 신용,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위주의 여신에 대한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매금융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

되어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형예금은행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위험분산효과가 큰 소매금융에의 진출을 강화함에 따라 각 지역에 영업기반을 두고 있는 소규모 금융기관들(이하 서민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유일한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가 하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내 예금은행의 경우 점포 및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업무자동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소매금융으로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다양한 상품을 무기로 소매금융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그동안 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은 정부의 금리정책과 세금우대 정책 등으로 인하여 업무영역이 제한적이고 자본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있는 금융기관들과 경쟁이 가능하여 왔다. 그러나 금리자유화가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차별적인 금리정책 하에서 서민금융기관들이 누렸던 반사이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에 따른 보호막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각종 장치들이 사라짐에 따라 서민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한 대책마련과 경쟁력 확보가 적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는 재무비율을 비교·분석하는 정도였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생존과 성장발전을 위하여 현재의 실태 및 경쟁

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경영실태를 재무자료를 이용한 경영분석과 비재무자료 즉,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과 기타 질적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평가의 결과를 종합화하여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이들 서민금융기관의 생존과 성장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금융기관 별 「감사보고서」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정보와 통계자료를,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하여 「2001년도 비은행경영통계」와 신탁통계 자료를 입수하였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지역본부제주출장소, 새마을금고연합회 제주도 지부 등을 통하여 「제주지역 경제동향」 각 호와 보도자료, 「신탁통계」 각 호, 「새마을금고통계」 각 호를 입수하여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으며, 그 외 한국은행 제주본부발행 「2000년도 제주지역 금융기관 자금조달·운용과 수지현황」을 이용하여 분석평가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각종 문헌 및 조사자료와 연구논문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영분석방법은 시중은행 등 대형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시스템인 카멜(CAMEL)모형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예금은행, 농·수협의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경쟁력의 정도를 5개의 요인

즉,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그리고 경영관리능력으로 구분한 뒤 각 부문별로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부문별 등급을 종합화한 종합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CAMEL모형을 이용한 경영분석에 더하여 디지털금융의 수준과 기타 질적인 요인을 평가하고 여기서 도출된 요인들을 종합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협 상호금융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 금융제도의 특징, 금융기관의 역할과 현황, 통화금융기관으로서의 예금은행과 비통화 저축기관으로서의 서민금융기관에 대하여 고찰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의의 및 특성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여·수신현황,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표본자료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요약정리 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하였다.

제 2 장 한국의 금융제도와 서민금융기관

제1절 금융제도의 특징

1. 금융구조

한 국가의 금융구조의 고도화 또는 금융자산축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융연관비율(FIR: financial interrelation ratio)이 자주 이용된다. 동 비율은 금융자산잔액을 실물자산잔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되나 실물자본잔액에 대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어려움으로 자본계수¹⁾가 일정하다고 보고 통상 금융자산잔액을 경상 GNP(또는 GNI)로 나눈 수치로 대용한다.

금융연관비율은 저축과 투자주체가 분리될수록, 간접금융의 우회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²⁾

한국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소득수준이 낮고 물가가 불안하여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동 비율이 2 %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과 물가안정으로 저축여력이 증대 되는데다 금융기관의 신규 설립과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금융저축수단이 증대된 데 힘입어 1990년대 들어 4%대를 상회하고 2001년에는 7%대를 보였다. 금융연관비율은 크게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축적비율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특히 금융부문의 증가율이 두드러져 금융구조가 점진적으로 고도화 되어가고

1) 금융자산/GNP(또는GNI)=금융자산잔액/실물자본잔액×실물자본잔액/GNP(또는GNI)
=금융연관비율×자본계수

2) 강병호, 「금융기관론」, (서울 : 박영사, 2001), p.186.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의 금융연관비율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표 2-1>에서 같이 한국은 직접금융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금융자산을 형태별로 보면 <표 2-2>에서처럼 1995년도까지는 대출금, 금융기관예금 및 유가증권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었으나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유가증권, 금융기관예금 및 대출금의 순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개인들의 재산축적증대와 금융의 증권화현상으로 유가증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00년도 국내 금융자산 구성형태를 보면, 한국도 간접금융시장에서 직접금융시장으로 금융시장 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한국·미국·일본의 금융연관비율 비교(%)

국가 \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한 국	2.13	2.19	2.40	3.08	4.18	4.88	6.92	7.36
(금융부문)	0.60	0.81	1.04	1.39	2.03	2.36	4.04	4.29
(비금융부문)	1.53	1.37	1.36	1.69	2.14	2.52	2.88	3.07
일 본	3.74	4.41	4.94	5.99	7.10	8.43	11.29	11.44
미 국	4.37	4.16	4.43	4.81	5.33	7.22	8.96	8.88

* 금융연관 비율=국내부문이 보유한 국내금융자산/경상GNP

* 일본과 미국의 금융연관비율은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을 합한 수치임.

자료 : 한국은행, 각 연도별 자금순환통계.

<표 2-2> 한국의 금융자산 구성형태

(단위: %)

년도 형태별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합계(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금통화	2.3	2.1	1.3	1.0	0.9	0.5
금융기관예금	18.0	19.6	20.4	22.6	25.2	21.0
생명보험및연금	1.0	1.9	3.7	4.8	4.7	4.1
유가증권	27.6	19.2	20.5	25.8	24.0	29.5
채 권	1.8	7.6	10.3	14.5	15.5	21.2
주식및출자금	25.8	11.6	10.1	11.3	8.5	8.3
대 출 금	20.8	32.0	32.9	27.0	26.7	19.2
통화금융기관	17.1	21.8	19.6	13.4	11.2	9.2
비통화금융기관	3.6	10.1	13.3	13.7	15.5	10.0
기 타	30.5	25.2	21.2	18.8	18.5	25.8
(기업신용)	(6.2)	(8.6)	(8.3)	(5.3)	(4.5)	(2.8)

자료 : 한국은행, 각 연도별 자금순환통계

2.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한국의 금융제도는 일부 겸업주의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분업주의 체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대부분의 겸업업무도 경쟁기반이 약해진 금융기관에게 경쟁력의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부실금융기관을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과정에서 허용된 것으로 분업주의의 기본골격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제도는 은행, 증권 및 보험회사를 3개의 기본 축으로 하여 각각 고유업무를 갖고 주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에 따라 서로 겸

업하는 부분적인 겸업방식을 유지하여 왔다.

한편 은행, 보험, 증권회사 이외의 금융기관들은 이들 3대 기관들의 틈새에서 각각 비교우위에 의한 고유분야를 갖고 시장영역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타업무영역 상호진출로 겸업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법령 등에 의거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겸업업무를 영위하되 타금융업종의 고유업무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영위하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겸업을 허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을 3개의 기본 축으로 하고 각 업종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비핵심업무는 단계적으로 겸업을 확대해 갈 것이며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취급업무가 차등화 될 것이다. 겸업의 단계적 확대과정은 1차적으로 비핵심업무 중심으로 이종업종간 업무제휴가 확대 허용될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간 업무제휴는 증권, 보험, 투신,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이 주로 은행의 지급결제기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무제휴로 금융산업의 안전성이 저해되거나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등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한 광범위하게 허용될 예정이다. 업무제휴확대의 결과 겸업에 따른 폐해가 크지 않고 금융시장의 경쟁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이종업종 비핵심업무의 부수업무 또는 겸업업무로의 취급허용에 이어 핵심업무의 겸업도 단계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핵심업무의 겸업방식은 직접경영(in-house), 자회사 및 지주회사방식 등이 선택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한편 이종금융기관간 합병 전환의 경우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이 현저하게 크지 않는 한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핵심업무 겸업도 최대한 허용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권의 겸업과 합병 등이 확대되어 간다면 한국의 금융산업

은 다음과 같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은행의 경우 지급수단의 발행·교환 및 결제업무, 예대업무, 외환업무 등 전통적인 상업은행업무 및 증권회사의 핵심업무인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관련 업무를 제외한 전 증권업무와 보험상품의 판매업무, M&A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와 기업경영컨설팅 업무 등이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체 내에서 겸업이 허용되고 있는 신탁업무는 이해상충 등 직접겸업에 따른 폐해가 커 자회사 방식을 통한 겸업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은행들이 동일하게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은행의 건전성과 업무능력에 따라 선도은행(leading bank), 일반은행 및 지역은행으로 유형화될 것이다. 선도은행은 주로 국내 우량기업이나 외국의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연계증권, 외화표시채권·CP 등의 발행주선·인수,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생금융상품 등을, 일반은행은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화 및 외화대출, 어음할인, 주식·회사채의 발행 주선업무 등을, 지역은행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반대출 및 어음할인, 리스, 팩터링, 할부금융, 경영컨설팅, 세무상담, 기술정보 알선, 채권회수 대행업무 등을 취급하게 될 것이다.³⁾

제2절 금융기관의 역할 및 현황

1.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기관은 금융의 중개기능과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의 중개기능은 개인예금자 등과 같은 최종적인 자금공급자와 기업 등 최종

3) 강병호, 전게서, pp.190~192.

적인 자금수요자 사이에서 양자간의 이해 차이와 보유정보의 격차를 조정함으로써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기능이다.

금융중개기능을 세분화하면, 변환기능과 여신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융의 변환기능은 자금의 규모와 기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금융기관은 개개의 예금자로부터 소규모의 자금을 모아 대규모의 자금을 형성하고 그 자금을 운용한다. 이때 금융기관은 먼저 고객의 예금인출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나머지 자금을 운용한다. 금융기관은 매일매일 입금과 출금내역을 파악하고 미래의 입금과 출금 추이를 정확히 예측하여 어느 정도의 자금을 어떤 형태로 보유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은 금리, 만기, 금리변동가능성 등 각종 여건이 다른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산과 부채 형태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유동성확보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측면에서도 위험과 수익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등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반면에 금융기관은 예금자를 대신하여 대출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여신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금융결제기능은 고객간의 자금거래를 매개하는 기능을 말하며, 현재 대표적인 결제수단은 현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신용카드, 온라인 및 지로 등 전자자금이체제도(EFTS: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를 통하여 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제기능은 은행의 고유기능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 특히 암호를 이용한 서명기술의 발달로 고객들이 개인용 컴퓨터나 IC(integrated circuit)카드가 내장되어 있는 전자화폐(EDI: electronic data exchange)를 활용하게 되면서 은행의 결제기능 독점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2. 금융기관의 현황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통화성(moneyness) 기준분류에 따르면 <그림 2-1>에서와 같이 금융기관을 통화금융기관(monetary institution)과 비통화금융기관(nonmonetary institu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화금융기관은 현금통화를 창출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예금은행으로 분류하는데 예금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동법의 규제를 받는 일반은행과 개별은행법에 의해 설립되고 규제를 받는 특수은행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은행은 다시 영업구역의 제한여부에 따라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중은행(nationwide commercial bank)과 영업구역이 특정지역으로 제한된 지방은행(local bank)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분된다.

특수은행에는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이나 수익성의 제약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특수부문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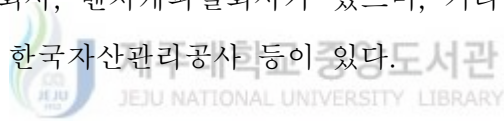
한편 예금통화의 창출능력이 없는 비통화금융기관은 자금조달형태에 따라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보험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기관에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있으며, 투자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금융회사가 있다.

저축기관에는 은행신탁계정,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단위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이 이에 해당되며, 보험기관으로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우체국보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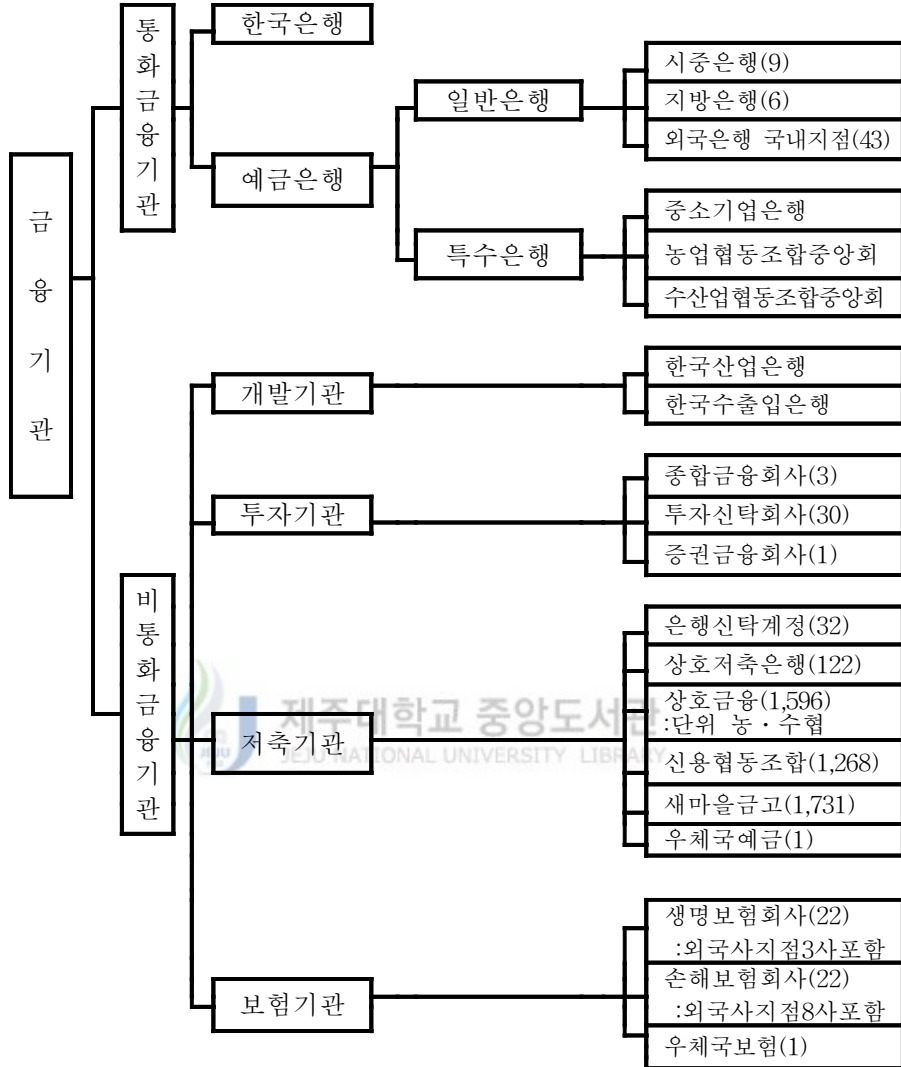
은행신탁계정은 모든 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신탁업무는 고객의 재산을 수탁 받아 특정대상에 장기간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업무로서 수탁자는 일정율의 수수료 수입만을 획득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이며,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구성원간의 유대 및 상호부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협동조직이다.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취급한다.

그 외에 기타기관으로 증권관련기관, 신용보증기관, 여신전문금융기관과 구조조정기관 등이 있다. 증권관련기관으로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가 있고, 신용보증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조합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이 있으며,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는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가 있으며, 기타 신용평가회사, 신용조사(추심)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다.



<그림 2-1> 한국의 금융기관(2001년 12월 말 현재)



기 타 기 관	증권관련기관 — 증권회사(153), 선물회사(14), 투자자문회사(67).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조합, 대한주택보증.
	여신전문금융기관 —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벤처캐피털.
	기 타 — 신용평가회사, 신용조사(추심)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스템 리뷰」, 제6호, 2002.1.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02.1.

제3절 예금은행과 서민금융기관

1. 통화금융기관으로서의 예금은행

1) 일반은행

한국에서 일반은행(commercial bank)이라고 하면 1950년 5월에 제정 공포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을 말하는데, 주요업무는 대중으로부터 단기적인 예금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출이나 어음할인에 의해서 주로 단기적인 상업자금을 공급하는데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을 영국에서는 예금은행(depository bank), 미국에서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 독일에서는 신용은행(credit bank), 그리고 일본에서는 보통은행이라고 불리고 있다.

한국은 은행과 증권업무의 분리, 장기금융과 단기금융의 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은행은 1년 이내의 단기예금 및 대출업무, 환업무, 지급보증업무 등 전통적인 단기상업금융업무를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직접금융시장이 발달되지 못하고 은행은 단기상업업무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변업무를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취급하여 왔다. 그러던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1996년 은행법의 개정으로 대출기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장기금융취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금전신탁, 증권투자신탁, 재산신탁 등 각종 신탁업무, 카드업무, 팩토링업무, 증권업무 중 국공채의 간사 및 판매업무, 사모채 인수업무, 인수단 및 청약사무단에 참가할 경우의 주식인수업무, 환매조건부매도업무, 유가증권의 보유 및 운용업무,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 국고대리점 업무, 보호·예수업무, 각종 수수료업무 등은 직접 경영하고 기타 증권업무와 리스업무 등 일부 종합금융업무는 자회사를 통해 취급하고 있다. 앞으

로 세계적인 금융의 검업화 추세에 따라 일반은행의 업무영역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반은행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다.

시중은행(nationwide bank)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다. 1970년대까지는 조흥은행, 제일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의 5개 시중은행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11개 은행이 신설 또는 업종전환에 의해 새로 진입함으로써 1997년에는 16개에 달했다. 이기간 중에 신한(1982), 한미(1983), 동화(1989), 동남(1989), 대동(1989), 평화은행(1992)이 신설되었고 한국투자금융(주)이 하나은행(1991)으로, 한양투자금융(주)과 금성투자금융(주)이 합병하여 보람은행(1991)으로 전환하였고, 한국외환은행(1989), 국민은행(1995) 및 한국주택은행(1997)은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던 것이 금융외환위기 이후에는 퇴출 및 합병으로 크게 줄어 2001년 말 현재 국민은행, 한빛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평화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등 9개의 은행이 있다.

지방은행(local bank)은 금융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1967년 부산시와 각 도 단위로 한 개씩 총 10개 은행이 설립되었으나 1998년 6월에 경기·충청은행이 퇴출 되고, 1999년에 강원·충북은행이 조흥은행에 합병됨에 따라 2001년 말 현재로 6개의 지방은행이 존속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업무종류 면에서 시중은행과 차이가 없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비율, 타지역에서의 대출비율제한 등 시중은행에 비해 지역금융의무가 상대적으로 강하였으나 1998년에 규제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점포망의 열세 등을 규제금리 차별로서 보완하여 왔으나 금리자유화로 지방은행도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합

병이나 업무제휴 등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화소요자금의 원활한 도입과 선진금융기법의 습득을 목적으로 허용되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1967년 미국의 체이스맨해튼은행(Chase Manhattan Bank)이 지점설치를 시작으로 2001년 말 현재 43개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과거에 업무범위가 제한된 반면 유동성 규제를 위한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조작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내은행과 영업여건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각종 우대조치의 축소와 차별적인 업무규제의 철폐로 국내은행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업무범위도 확대되어 현재에는 국내은행과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2) 특수은행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의 수익성이나 전문성 또는 재원조달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일반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의 특수은행은 대부분 그들의 고유한 정책금융과 아울러 일반은행 업무를 겸해서 보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 결과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의 분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수은행의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외환은행이 1989년에, 국민은행이 1995년에 그리고 주택은행이 1997년에 그 설립 근거법이 폐지되어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특수은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1953년 휴전 후 전쟁피해의 복구와 물자생산의 증대를 통

한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산업금융채권발행, 정부차입금, 해외차입금, 예금·적금 등으로 조달하는데 요구불예금의 수입은 한국산업은행의 자금공급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다. 자금의 운용은 투융자업무 외에 보증업무 및 외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969년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출, 외국에 대한 기술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출, 한국으로부터 상품의 수입 또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대출, 국민경제의 긴요한 자원이나 상품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금의 대출, 해외투자를 위한 대출과 이에 부수되는 보증업무 및 외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이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1년에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농업은행으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주요 자금조달원인 예금의 수입에 있어서는 일반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를 제한 없이 취급할 수 있고 자금의 운용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대출과 어음의 할인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운영에 있어서는 대출비중이 줄어들고 유가증권투자 비중은 커지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1961년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농업은행과 구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1980년에 축산지원부분을 분리하여 축산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로 이관하였다가 IMF 구제금융체제 하에서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9년 9월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의 제정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을 중심으로 조직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원예, 과수 등 특수 농업경영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전문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이들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2단계 계통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이 적용되고 비조합원과의 자금거래도 허용되는 반면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적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 거래대상도 조합원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만 은행으로 분류하고 지역조합의 신용사업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으로 분류한다.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업 무전반과 회원을 위한 공제(보험)업무를 취급하며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이들 산업의 생산력증대를 금융면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일반여수신, 지급보증업무, 내국환, 및 외국환업무는 물론 상호금융, 팩토링,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국공채 등 유가증권투자, 신탁 및 신용카드업무 등 일반은행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조합의 상호금융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금융기관으로 주로 조합원들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이를 조합원들에게 대출하는 금융업무를 수행하며 이 밖에 조합원에 대한 각종 부대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원조합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며,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4) 조희영, 「금융제도론」, (서울 : 민영사, 2000), pp.192~193.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하되 금감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합을 촉진하여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 수산업의 생산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직은 대체로 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하며, 중앙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있으며 그 회원조합으로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전문조직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 있다. 업종별 조합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되는 연합회를 두고 있다. 한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시·군지역 단위로 조직되어 그 조합원은 공동사업을 위해 다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 중에 신용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다.

농협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신용사업부분은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상 한 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뿐만 아니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분도 금융기관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농협협동조합과 다르다.

신용사업부분의 업무내용은 수산금융을 전담하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은행과 같이 여수신 및 지급보증, 내·외국환, 상호부금, 상환조건부채권매도, 신탁 및 신용카드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하되 금감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비통화저축기관으로서의 서민금융기관

1)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s)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과 영세상인에게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설무진회사, 서민금고 등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1972년에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이다.

상호신용금고는 설립초기에는 일부금고의 부실화 문제 등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기준자본금제도의 도입으로 자본규모의 대형화, 경영건전성에 관한 지도감독 강화 등 공신력제고를 위한 제반조치와 취급업무의 다양화 등 각종 육성시책에 힘입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은행에 비해 자본·인력·공신력 등에서 열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는 장기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초과수요가 지속된 데다가 은행과의 차별적인 금리규제로 고금리수신·고금리여신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유리한 영업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금리자유화 및 금융개방화의 진전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신금리의 차이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가격 경쟁력의 약화 등 그동안 상호신용금고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경영환경은 사라지고 1997년 말 금융외환위기 이후 지방중소기업의 부도급증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많은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9월에 부실금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한아름금고를 설치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표 2-3>에서와 같이 1997년 말 231개 사였던 상호신용금고가 1998년부터 2001년 말까지 95개 사가 인가취소 되고 26개 사가 합병되었으며 현재에도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12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성제고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요건을 확대하고 최저자본금인상 및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3월 1일부터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표 2-3>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단위: 개)

	연 초 회사수	신설	구조조정 현황					년말회사수
			인가취소	파산	해산	합병	합계	
1998	231	12**	18	-	-	2	20	211
1999	211		15	-	-	10	25	186
2000	186		27	-	-	13	40	146
2001	146		35	-	-	1	24	122
합 계			95			26	121	

**1998년~2000년 말까지 신규인가

자료: 금융감독원, 연차보고서, 2000.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2.2.

상호저축은행의 주요업무는 상호신용계, 신용부금, 예·적금의 수입, 대출, 어음할인, 내·외국환업무, 보호예수,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 당초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는 상호신용계, 신용부금,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할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은행업무와 유사한 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공신력 제고와 경영의 건전화를 위하여 2%이상의 출자자, 임직원 및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이나 가지급금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이내, 유가증권에 대한 보유 한도 및 차입한도를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추어 총여신의 일정비율 이상을 개인 및 소규모기업에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지급준비금관리와 예금보험기능은 종래에는 신용관리기금이 관장하였으나 1998년 4월부터 신용관리기금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급준비금관리기능 등 중앙금고기능은 상호저축은행연합회로 그리고 예금보험기능은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되었다.

상호저축은행연합회는 상호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연구·조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상호저축은행의 보유·매출어음의 매입,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국고수납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그 명칭 또한 2002년 3월 1일자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99년 12월에 상호신용금고법의 개정으로 유가증권의 모집·인수·매출과 자회사의 설립·운영 또는 타법인 출자가 연합회의 업무로 추가되었고, 일부 우량금고나 타지역금고를 인수한 경우에는 지점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2)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s)은 1950년대 후반 전쟁으로 인한 실업자 사태, 물가고, 기아와 경제적 궁핍상황과 함께 불신풍조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단체와 성직자들에 의해서 순수한 민간 운동으로서 자발적 협동조합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메리놀수녀회의 메리가벨 수녀(Sister Mary Gabriella Mulherin)를 중심으로 신협운동에 대한 강연회를 열고 다른 나라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소개와 한국에서의 신용협동조합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1960년 3월 가벨수녀가 일하고 있던 메리놀병원에서 메리놀병원과 성베네딕트 병원의 임직원과 카톨릭 구제회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7주간의 강습회를 개최하고 다음날 메리놀병원 카톨릭구제회 및 성베네딕트 병

원의 직원을 공동유대로 하는 성가신용협동조합(Holy Family Credit Union)이 창립⁵⁾되었는데 한국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일반 소비자나 중소기업가 영세자영업자들의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조달하여 활용하며 때로는 조합원의 생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동구입·구매알선 등의 사업도 행하는 은행의 역할과 구매조합의 기능까지를 겸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이다.⁶⁾

신용협동조합운동은 1849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은 나폴레옹 전쟁과 1846년 서부독일의 흉작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이 극심하였고, 도시 수공업자나 농민의 생활은 상품경제의 침투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워져 갔으며 가장 큰 문제는 자금부족이었다. 중소상공업자나 농민은 고리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고리대금업자의 횡포가 극심하여 농민과 영세수공업자들이 생활이 몹시 어려웠다. 이러한 격동기에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자발적으로 협동조직을 만든 것이 바로 신용협동조합이다. 독일에서 시작한 신협운동⁷⁾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고, 한국에서도 1960년 부산의 성가신용협동조합을 효시로 주로 교회, 학교, 직장 등을 단위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법률적인 근거와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전인 1971년 말에 582개였던 조합수가 1997년 말에는 1,666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증가로 부실조합 중 상당수가 합병 또는 파산 처리되어 <표 2-4>와 같이 1999년 말에 1,442개로 2000년 말에는 1,317개로 감소하였고, 2001년 말 현재는 1,268

5) 신용협동조합 제주도연합회, 「제주도신협30년사」, 1995, p.110.

6) 박창렬, 「신용협동조합운동」, (서울 : 카톨릭출판사, 1982), p.88.

7) 한영규, “금융환경의 변화와 신용협동조합의 경쟁력강화방안”,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3.

개로 감소하였다

<표 2-4>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 현황

(단위: 개)

	연 초 회사수	신설	구조조정 현황					년말회사수
			인가취소	파산	해산	합병	합계	
1998	1,666	10	1	28	40	15	84	1,592
1999	1,592	-	1	77	27	45	150	1,442
2000	1,442	-	-	47	36	42	125	1,317
2001	1,317						49	1,268
합계		10					408	

자료: 금융감독원, 「2001년도 비은행경영통계」, 2001. 11.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예탁금, 적금 등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로 조합원에게 용자를 해주어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이 밖에 내국환, 대리업무, 보호예수, 교육 및 지역개발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997년 12월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지로, 자금이체, CD/ATM, ARS를 이용한 자금거래, 국·공과금 수납, 어음할인 등으로 그 업무영역이 확대된 데 이어 1999년 2월부터는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조합사업의 범위에 예탁금 및 적금을 추가함으로써 조합의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신용협동조합은 재원의 일정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업, 문화후생복지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복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간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기능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안전기금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1998년 4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관장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조사·지도 등 지원활동, 조합의 감독 및 검사, 조합으로부터의 출자금, 예탁금 등의 수납, 조합에 대한 소요자금의 대출이나 차입, 공제사업, 국가공공단체의 금융기관업무대

리, 이밖에 보호예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조직된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조사연구 및 홍보, 교육사업,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공제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사업은 조합으로부터의 예·적금 및 상환준비금의 수입·운용, 조합에 대한 대출, 내·외국환 업무 등이 있다.

3)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communitiy credit cooperatives)는 1961년부터 부산지역에서 시작된 신용협동조합의 제3차 강습회(1963.4)에 참석했던 재건국민운동경남지부 요원들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운동이 도입되면서 차츰 인근마을, 군등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5월 재건국민운동경남도지부에 의하여 산청·창녕 지방의 일부에서 시작⁸⁾ 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새마을금고는 신용조합이라는 명칭으로 1963년 5월 25일 경상남도 산청군 하둔리에 설립된 하둔신용협동조합이 효시이다.

초기 마을금고운동은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전국적 수준에서 조직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분히 자연발생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재건국민운동본부가 마을금고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64년 8월 재건국민운동본부가 법률의 폐지로 해체되고 사단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가 민간기구로 발족하면서 마을금고사업을 재건학교사업과 함께 재건국민운동중앙회 2대 실천과제의 하나로 설정되어 중앙사업으로 채택하면서부터이다. 1982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현재와 같이 새마을금고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새마을금고법 제정당시에는 금고수가 11,719개, 회원 수는

8)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35년사」, 1989, pp.64~65.

538만 명에 달하였으나 동법 시행 이후 부실금고의 정비 등으로 1983년 말에는 금고수가 5,360개 , 회원수가 394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이후에도 금고 수는 계속 줄어들었으나 회원 수와 자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금융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계속 이루어져 <표 2-5>에서 보듯이 1997년에 금고수가 2,743개였으나 2001년도 말까지 1,085개의 금고가 구조조정으로 자체해산 되거나 합병되고 72개가 신설되어 2001년12월 말 현재는 1,730 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다.

<표 2-5>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현황

(단위:개)

	연 초 회사수	신설	구조조정 현황				년말회사수	
			인가취소	파산	해산	합병		합계
1998	2,743	6			159		159	2,590
1999	2,590	66			530		530	2,126
2000	2,126				71	238	309	1,817
2001	1,817				51	36	87	1,730
합계		72					1,085	

자료: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통계」 각 연도

새마을금고의 취급업무는 회원으로부터의 출자금과 예·적금의 수납, 대출,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연합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보호예수 업무, 어음할인 등 신용협동조합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전월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2분의1 이상을 연합회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97년 법의 개정으로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회원에게 새마을금고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계몽·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금고의 감독과 검

사, 금고의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공제사업과 국가·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며, 새마을금고 회원의 예·적금과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고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내·외국환업무, 보호예수,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유가증권의 인수·매출업무 등이 있다.

3.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의의 및 특성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란 일정 행정구역내에 영업기반을 두고 영세상공인, 자영업자, 지역주민 등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중개를 비롯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소규모금융기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협동조합형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으며, 넓은 범주에는 농·수협이 상호금융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몇 가지 공통점과 함께 협동조합 유무에 따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공통점으로 우선 먼저 시대적 배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시대적으로 어려운 환경하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사금융 양성화방침에 따라 1972년 제2금융 3법 즉, 단기 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의 제정·공포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 졌다.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서 상호저축은행 전신인 상호신용금고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된다. 1950년대 후반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

하여 실업사태와 물가고, 기아와 경제적 궁핍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자금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경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비롯한 제도금융기관들은 주요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배분하였고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과 영세상공인들은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사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금융은 사설무진회사, 전당포, 계 등으로 발전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왜곡시키고 영세상공인들과 서민들은 지나치게 높은 고리채의 압박과 사설계의 성행은 불신풍조와 서민가계에 불안심리를 조성함은 물론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시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에 한국무진, 신흥무진, 대안무진을 인수하여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특수은행으로 국민은행을 설립하는 등 사금융을 양성화하여 제도권으로 흡수, 발전시키고자 1972년 8월 3일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조치명령인 8·3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제2금융 3법을 제정 공포되고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다. 또한 1969년 단위조합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연쇄점 설치와 함께 시작된 지역 농·수협의 상호금융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서민금융기관들은 규모가 소규모라는 것과 농·수협의 상호금융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못하고 금융결제원에 가입도 못함으로써 수표발행이나 결제업무를 예금은행을 통해서 해야하는 설움도 함께 하여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차이점은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태이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지역 농·수협은 협동조합의 이념을 실천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협동조합형태의 금융기관에게는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조합원(회원)⁹⁾에게도 일정 한도의 예·적

금 및 출자금에 대하여 비과세혜택¹⁰⁾주어진다.

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 받는 영세상공인들과 서민에 금융의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 금융수요를 충족시켜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상대적 취약계층인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여 왔다는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서민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1) 상호저축은행의 특성

상호저축은행은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을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¹¹⁾

첫째, 영세상공인과 서민에게 금융의 가용성을 증대하고 또한 저축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소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금융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사회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금융조직의 특성이 있다.

셋째, 금융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계층간 산업간의 균형적 발

9)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신탁이나 농·수협에서는 '조합원', 새마을금고에서는 '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10) 조합원(회원) 1인당 예·적금 2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면제.

11) 김경수, 상호신용금고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3.

전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한다.

넷째, 영업구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영업구역내에서 자금을 공급하여야 하는 환원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2)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특성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동조직을 구성하고 자금의 조성 및 이용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협동조직이다.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 제1조에서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을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합한 자치적인 인적 결사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상대적 취약계층인 특정 다수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일

반적인 보편성을 갖는다.¹²⁾

구성주체면에서 볼 때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상부상조 단체이다.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계층간 부분간에 상대적인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농어어민이나 일반근로자 및 소비 대중들과 같은 서민대중들이 자주 자조와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이러한 격차를 집단적으로 좁히기 위해 결성하는 자구단체가 바로 협동조합이다.

운영면에서 볼 때 민주적·참여적 단체이다.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통제되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조직이다. 조합원의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이러한 성격을 잘 나타내준다.

재정구조면에서 볼 때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비영리 경제단체이다. 주식회사의 사업목적은 이윤극대화이지만 협동조합의 사업목적은 조합원에 대한 봉사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 잉여를 주식회사와 같이 어느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조합원 전부에게 환원한다는 점에서 비영리성과 형평성을 갖는다.

조직면에서 볼 때 인적단체이다. 협동조합은 특정조합원에 대한 최대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결합체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책임을 기초한 인격을 중시하며 조합원에게 조합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격요건을 요구한다.

둘째,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일반금융기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부문에 저축을 동원하여 영세한 가게나 서민에게 금융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금융기관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저축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12) 새마을금고연합회 연수원, 새마을금고 교재, 1999, p.30.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조합원(회원)으로부터 출자금과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회원) 및 주민에게 대출이라는 형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줄뿐만 아니라 공과금수납 환업무 등 일반은행이 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무와 공제(보험)상품을 취급하여 적은 공제료 부담으로 조합원 및 회원의 위험을 보장해 주고있다.

셋째, 주민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자조적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협동운동에 있어서 교육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사업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협동조합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사업은 이념·목적·원리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그들을 민주적 참여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독서실, 유아원, 예식장운영 등의 문화 복지·후생사업이나 구관사업, 공동이용, 우편취급소, 택배사업 등을 통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킨다.



제 3 장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현황 및 실태

제1절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여·수신현황

1.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현황

2001년 말 현재 제주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을 살펴보면, 예금은행이 지점 및 출장소를 포함하여 74개소가 있으며,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투자기관이 1개,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대별되는 저축기관이 242개, 그리고 증권회사 등 기타기관이 17개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저축기관으로 분류되는 농·수협의 상호금융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소와 출장소를 포함하여 120개의 점포가 있으며 본점수로 보면 농협이 구 축협 및 감협을 포함하여 25개의 농협이 있고, 수협은 8개가 있다. 상호저축은행이 3개, 신용협동조합이 32개, 새마을금고가 46개 그리고 우체국이 있다.

그 외에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업무 이외에 대출업무까지 취급하고 있으며, 카드회사와 대출전문 사설기관까지 무수히 많은 업체가 한정된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1년 말 현재 제주시에 201개소, 서귀포지역 81개소, 북제주군지역 67개소, 남제주군지역에 65개소의 점포가 소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 금융기관점포 50%가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제주지역에 서민금융기관으로 대표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한국 전체가 그러했듯이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제주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몇몇 선각자¹⁾들에 의해서 1962년 한림

신협을 시작으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1972년 6월 도순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그동안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서민금융기관은 지역적 한계성으로 인하여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있으나 지역고객과 소매금융위주의 금융거래에 특화함으로써 예금은행과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왔다. 특히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의 상호금융은 신용사업이외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문화·후생복지사업 등을 통하여 공동유대를 중심으로한 밀착경영으로 199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예금은행의 점포망 확충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외환위기로 인한 성장률 둔화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서민금융기관들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고 1997년 말과 비교해 보면 <표 3-1>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이 4개, 신용협동조합이 4개,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15개가 통합되거나 폐업되었다. 2001년 말 현재는 상호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된 한 곳을 포함하여 3개, 신용협동조합이 32개, 새마을금고 46개가 현재 영업 중에 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별로 구조조정은 계속 이루어질 전망이다.

1) 1962년 당시한림교회 주임 신부 PJ·맥그린치신부가 수산메리놀수녀회 협동조합교도봉사단의 실시한 제1차 신용협동조합강습회에 천주교신자2명을 파견하여 9일간의 교육이 수후 한림천주교 교도봉사회 천주교신자를 대상으로5일간의 강습회를 실시하면서 제주 지역신협이 탄생하는 계기가됨

<표 3-1>연도별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수

기관 \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농·수협상호금융	125	128	129	122	120
상호저축은행	7	6	5	4	3
신용협동조합	36	37	36	33	32
새마을금고	61	57	56	48	46

주)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는 본점기준, 농·수협의 상호금융은 점포수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2001년도 비은행경영통계」, 2001.11, pp.133~356.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통계」, 2001, p.35

한국은행 제주본부, 2001년중 도내금융기관의 점포 및 인원변동상황, 2002. 2.

2.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여·수신 현황

2001년 12월 말 현재 제주도내 금융기관의 총 예·수금은 8조 903억원이며, 그 중에 단위 농·수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차지하는 예·수금은 3조 7,120억 원으로 금융기관별로 보면<표 3-2>에서와 같이 예금은행이 40%를 점유하고 있고, 단위 농·수협의 상호금융이 그 다음으로 25.3%, 새마을금고가 7.6%, 신용협동조합이 6.9%, 상호저축은행이 6%, 우체국예금이 3% 그리고 은행신탁 등 기타기관이 1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이 수신 점유율이 45.8%로 일반은행보다 6%가까이 높다.

따라서 이들 서민금융기관이 역할이나 금융기능의 강화는 제주지역 서민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

가 되고 있다.

대출금의 경우 총대출금은 5조 8,253억원 중에 예금은행이 55%인 3조 2,082억원으로 가장 높고, 지역 서민금융기관 중에는 상호금융이 25.4%인 1조 4,825억원, 새마을금고가 약 7%인 4,066억원, 상호저축은행이 6%인 3,529억원,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이 5.7%인 3,327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기관이 약 1%을 점유하고 있다. 대출금은 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2금융권 전체보다 10%이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경쟁력이 예금은행에 비해 뒤떨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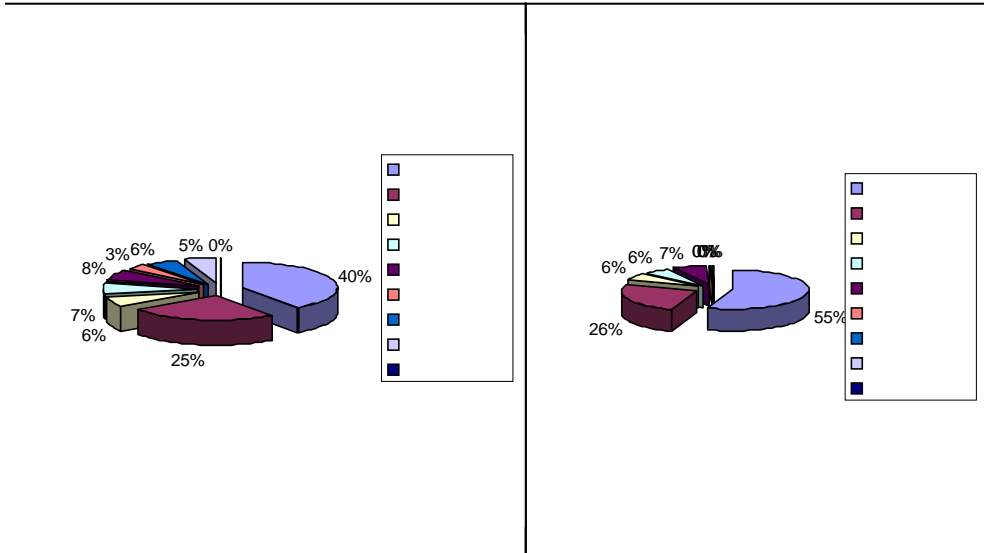
<표 3-2> 도내 금융기관의 여·수신 비중(2001. 12월 말 현재)

(단위: 억 원, %)

구 성	기관별	예금	상호	상호저	신협	새마을	우체국	은행	투자	개발	총 계
		은행	금융	축은행		금 고	예 금	신탁	신탁	기관	
수 신	금액	32,397	20,536	4,853	5,580	6,157	2,440	4,460	4,439	41	80,903
	비율 (%)	40.04	25.38	6.00	6.90	7.61	3.02	5.51	5.49	0.05	100
여 신	금액	32,082	14,825	3,529	3,327	4,066	-	170	-	254	58,253
	비율 (%)	55.07	25.45	6.06	5.71	6.98	0	0.29	0	0.44	100

주)예금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합계임
 자료: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지역경제동향」, 2002.1.

<그림 3 -1> 도내 금융기관 예·수금 및 대출금구성 현황(2001년 12월말)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 및 대출금 현황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표 3-3> 및 <표 3-4>에서 같이 예·수금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그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했어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금은 행과 비교²⁾하여 볼 때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증가율이나 대출금증가율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증가율이 두 자리에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체국이나 농·수협이 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출금 역시 농·수협의 상호금융을 제외하고는 그 성장폭이 많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대출금도 1997년과 1998년도에 걸쳐 무려 20%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예금과 마찬가지로 대출에 있어서도 고객들이 금융기관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금융기관

2) 2001년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자료: 한국은행제주본부, 제주지역경제동향, 2001.1, p. 15)에 의하면, 전년대비 시중은행이 0.9%증가한 102억 원, 지방은행이 18.6%증가한 1,557억 원, 특수은행이 9.8%증가한 936억 원이 증가함.

입장에서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고 대출을 기피했던 요인도 내재되어 있었다고 본다.

<표 3-3>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 현황(년도별)

(단위: 억 원)

년도별 기관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상호금융	6,055	7,164	8,681	9,920	12,287	13,862	16,907	18,070	19,573	20,536
상호저축은행	3,380	4,299	5,932	6,681	7,686	7,865	7,358	6,343	4,843	4,853
신용협동조합	1,462	1,761	2,189	2,734	3,468	4,109	4,685	4,967	5,043	5,580
새마을금고	1,246	1,472	1,910	2,413	3,413	4,245	4,857	5,435	5,634	6,157
우체국예금	293	356	457	507	573	625	1,167	1,577	2,053	2,440

주)본 현황은 제주도내 소재하고 있는 각 기관별 합계임

자료: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지역경제동향」, 각 호.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통계」, 2001.

<표 3-4>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 현황(년도별)

(단위: 억 원)

년도별 기관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상호금융	4,898	5,926	7,160	8,178	9,412	11,232	11,417	12,008	13,701	14,825
상호저축은행	3,718	4,592	5,578	5,913	6,139	5,734	4,479	3,564	3,159	3,529
신용협동조합	1,427	1,736	2,050	2,422	2,719	3,125	2,897	2,717	2,929	3,327
새마을금고	1,160	1,368	1,610	2,039	2,719	3,444	3,478	3,386	3,604	4,066
우체국예금	0	0	0	0	0	0	0	0	0	0

자료: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지역경제동향」, 각 호.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통계」, 2001.

제2절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실태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실태를 금융감독원의 「2001년도 비은행경영통계」,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통계」 그리고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2000년도 제주지역 금융기관 자금조달·운용과 수지현황」, 그 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금융기관별 감사보고서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등을 통하여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자산의 건전성 현황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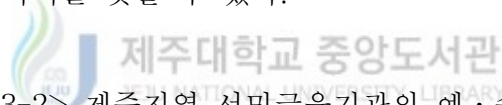
1. 성장성 현황

성장성비율은 일정기간 중에 기업의 경영규모 및 경영성과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대부분 총자산,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증가율로 측정하는데 내용상으로는 성장잠재력, 미래 수익발생능력이나 이익실현의 확실성 정도, 시장에서의 경쟁적 지위를 뜻하는 정보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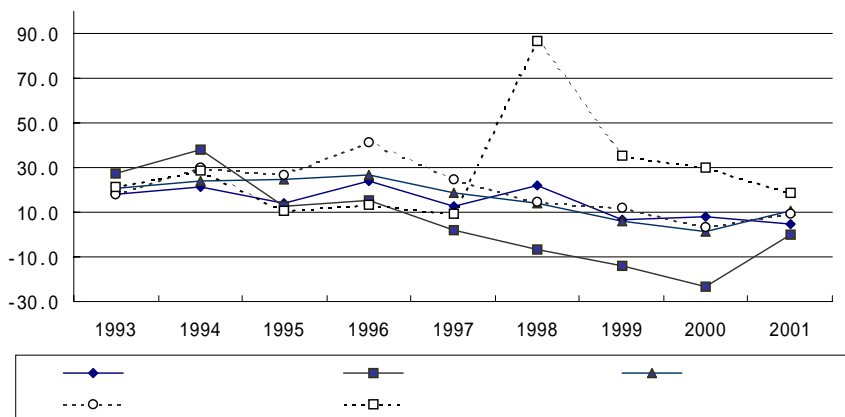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 및 대출금의 연도별 현황 <표 3-3>와 <표 3-4>를 토대로 하여 증감율을 산출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2> 및 <그림 3-3>과 같다.

1992년부터 2001년 말까지 증감율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의 영업정지 및 퇴출을 경험한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체국예금으로 많이 몰린 결과 우체국의 경우는 1998년 한해동안 무려 86.7%라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보였고, 2001년 말 현재 도내 우체국 예·수금은 2,440억원으로 1997년 대비 390% 신장되었다. 그리고 협동조합형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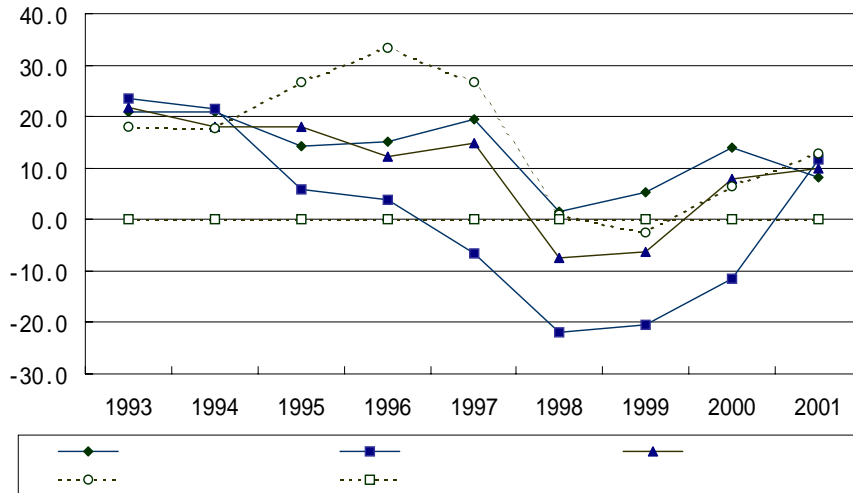
우는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우체국예금의 경우도 1998년 말을 기점으로 예·수금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1996년 이후 예·수금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2001년도에야 플러스성장률로 돌아섰다. 대출금의 경우 <그림 3-3>에서 보는바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1996년부터,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은 1997년도부터 대출금증가율이 감소하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도에는 다시 둔화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1998년도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9년도부터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들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예금 및 대출에 대한 홍보와 대 고객 서비스강화에 노력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들 금융기관들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림 3-2>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 증가율



<그림 3-3>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 증가율



2. 수익성 현황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수익률지표에 의해 측정되며 이는 종합적인 경영 성과와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낸다. 수익성 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익성지표로는 총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s)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capital)이 있다. ROA는 금융기관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영업성과를 올렸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세후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ROE는 투자한 자기자본 1단위가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올렸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ROA나 ROE변동원인분석을 이용하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료에 의한 평가라는 것과 투자결과인 세후수익률만 반영하며 투자활동에 잠재해 있는 리스크는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한계점도 갖고 있다.

<표 3-5>는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단위 농·수협), 상호저

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ROA 비교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5>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ROA 비교분석

(단위: %)

기관별 \ 년도별	1997	1998	1999	2000	2001
농협상호금융	0.3	0.2	0.2	0.00	-
수협상호금융	0.5	0.4	-1.4	0.20	-
상호저축은행	0.1	-7.9	-2.8	-4.4	-4.25
신용협동조합	1.42	1.29	-0.03	-0.26	-0.48
새마을금고	1.06	0.98	0.89	-0.27	0.23

주)ROA=세후당기순이익/총자산 (말잔기준)³⁾

자료:금융감독원, 「2001년도 비은행경영통계」, 2001.1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상호저축은행 2001년6월 결산자료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탁통계자료,2000~2001.

농업협동조합, 「경영통계」, 1998~2000.

새마을금고연합회제주도지부, 새마을금고 결산보고자료, 년도별에서 산출.

분석 결과⁵⁾ 2001년도 말 현재 ROA는 상호저축은행이 -4.25, 신용협동조합의 -0.48, 새마을금고가 0.23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수협의 경우 2000년도 말에는 0과 0.2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1년도에는 자료부족으로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 2001년도 말 현재 예금은행의 평균 ROA는 0.66⁶⁾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보다 높다. 예금은행의 경우 ROA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적자금의 투입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지역 서민금

3) 단, 상호저축은행 '97~2000년은 총자산의 기중평균

4) 공시된 감사보고서(2001.6.)중 제주지역 3개 상호저축은행의 자료를 합산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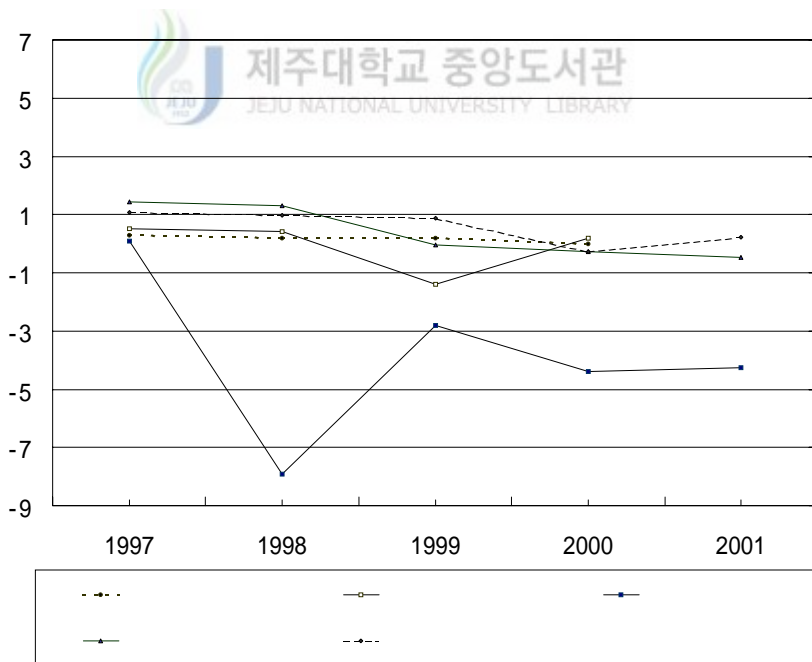
5) 이하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통계자료와 분석은 제주도내 소재하고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는 합계 또는 평균지표가 되므로 이 지표보다 더 양호한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더 못한 곳도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6)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01년 은행경영분석결과, 2002.4.15.

용기관의 ROA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면 1997년도 보다 1998년이 더 나빠졌으며,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는 의 경우 2001년 말 현재까지 마이너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의 원천인 대출금이 감소에 따른 이자수익의 감소와 연체대출금의 증가로 인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으로 수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였으며 또 대출감소에 따라 자금을 수익증권 등으로 운용하면서 리스크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우사태와 같은 환경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손실폍이 커졌다.

<그림 3-4>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ROA 추이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이 총자산수익율을 포함하는 수익성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우선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 대부분이 예·수금인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서민금융기관은 조달원가가 높은 저축성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달원가가 높기 때문에 예대마진폭이 작아져 수익률은 낮아진다.

다음은 운용부분의 문제로 대출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서민금융기관 수익의 원천은 대부분 예대마진에서 나오는데 대출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자수익의 감소를 뜻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아도는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유가증권 등의 고위험자산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재무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서민금융기관 들은 자금운용에 대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또한 자금운용을 위한 전문인력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유가증권 등 고위험자산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대우사태 및 한보사태 등이 발생하고, 증시의 폭락과 대우채 등 부실채권의 환매정지 등으로 인하여 부실자산이 발생하면서 서민금융기관 대부분이 큰 손실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소규모 지역서민금융기관들은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운용측면에서 리스크관리에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은행에 비하여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대출비율의 저조는 바로 수익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3. 생산성 현황

생산성은 경영능률과 성과배분의 합리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자본생산성(capital productivity)과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성이 있다.

자본생산성은 총자본 또는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노동생산성은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단위당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가가치를 종업원수로 나눈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쓰이고 있다. <표 3-6>은 2001년도 말 현재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점포 및 직원 1인당 평균 수신액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표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점포당 수신액은 970억원으로 제주지역에서는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예금은행으로 437억원, 농·수협이 상호금융이 171억원, 신용협동조합이 174억이며 그 중에 새마을금고가 133억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규모 면에서는 새마을금고가 가장 뒤떨어지고 있다.

<표 3-6> 금융기관별 점포 및 직원 1인당 평균 수신액 비교

(단위: 억 원, 명)

구 성 \ 기관별	예금 은행	상호 금융	상호저 축은행	신 협	새마을 금 고	우체국 예 금
점포당 평균수신액	437.8	171.1	970.6	174.4	133.8	62.6
직원1인당평균수신액	26.9	24.4	30.1	16.9	16.9	6.0

* 2001년 말 현재기준

주) 제주지역 예금은행, 상호금융 및 우체국예금은 지점점포기준으로 산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본점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국은행제주본부, 2001년 중 도내 금융기관의 점포 및 인원변동상황⁷⁾, 2002.2

7) 본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말 현재 도내금융기관의 직원수는 시중은행 305명, 지방은행 456명, 특수은행 442명으로 예금은행 합계가 1,203명이고, 이중 정규직원이 77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개발기관이 7명, 투자신탁 17명, 상호저축은행 161명, 신용협동조합 330명, 체신예금 410명, 상호금융 840명, 새마을금고 363명, 생명보험 277명, 증권회사 149명이다.

<표 3-7>은 2000년도 말 현재 제주지역 금융기관별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비교결과 1인당 당기순이익, ROA, 점포별 당기순이익의 모든 면에서 서민금융기관들은 예금은행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서민금융기관 중에서는 농·수협이 상호금융이 가장 우위에 있다.

<표 3-7> 제주지역 금융기관별 생산성 비교(2000년도 말 기준)

(단위 : %, 백만 원)

구 분		예금 은행	상호 금융	상호저 축은행	신 협	새마을 금 고
노동생산성	1인당당기순이익	20.4	1.4	-90.2	-4.8	-4.8
자본생산성	ROA	0.4	0.1	-4.2	-0.2	-0.3
	점포당순이익	314.5	22.1	-2,316.2	-51.7	-36.7

자료: 한국은행제주본부, 「2000년도 제주지역 금융기관 자금조달·운용과 수지현황」, 2001.4, p.43.

4. 자산건전성 현황



자산건전성(asset quality)이란 금융기관이 건실한 영업활동과 장기적인 수익력 확보의 원천인 자산의 질적수준과 운용의 적정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 모두가 평가대상이 된다. 그러나 수많은 계정과목 전부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통 건전성지표로 자산계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금융기관의 수익과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과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의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건전성확보와 불건전 자산에 대한 예방과 이의 조기 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두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자산

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면 정상(normal), 요주의(specially mentioned),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및 추정손실(loss) 등 5단계로 분류하고있다.

자산건전성 분류결과는 부실자산(classified loans)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조기 상각을 유도함으로써 자산의 과대계상을 방지하고, 적정 자기자본규모의 산출 및 여신관리 강화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종래에는 자산의 건전성을 원리금상환실적 등 과거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나 1999년 1월부터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차주의 미래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forward looking criteria)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에는 미흡했던 부실채권발생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시켜 무수익여신은 3개월이상 연체여신과 이자미계상여신으로 정의하고 고정으로 분류된 여신의 경우에도 실제 이자수취가 이루어지면 무수익여신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되더라도 이자가 수취되지 않은 여신은 무수익여신에 포함된다.

2000년 말 현재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표 3-8>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이 29.5%, 신용협동조합은 9.5%, 새마을금고가 7.5% 그리고 농협 상호금융이 4.4%, 수협 상호금융이 7.1%로 그 중에는 농협상호금융이 가장 양호하다. 2000년 말 기준 전국 예금은행의 경우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표 3-9>에서 보는바와 같이 평균 8.0%로 나타나고 있다.⁸⁾ 제주지역의 서민금융기관과 전국예금은행을 비교하여 보면 농·수협의 상호금

8) 은행권의 부실채권은 2000년말 총여신의 8.0%(42.1조원)에 이르렀으나, 대손상각·자산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한데 힘입어 2001년말 현재 역대 최저수준인 총여신의 3.4%(18.8조원)로 크게 감축되었다(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제2002-6호, 2002.2.)

융과 새마을금고는 비교우위에 있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은행평균보다 못하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8>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현황(2000년 말 현재)
(단위: 억 원, %)

기관별	구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고정이하		부실여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상호금융	농협	11,077	137	150	236	125	11,725	511	4.4	361	3.1
	수협	2,877	87	105	82	40	3,191	227	7.1	122	3.8
상호저축은행		2,104	96	408	446	55	3,109	909	29.2	501	16.1
신용협동조합		2,666	72	136	120	33	3,027	289	9.5	153	5.1
새마을금고		3,206	128	189	61	20	3,604	270	7.5	81	2.2

주)상호저축은행은 2001년 6월말기준(결산기준), 나머지는 2000년 12월말기준(결산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2001년도 비은행경영통계」, 2001. 11.

새마을금연합회제주도지부, 통계자료, 2001.

<표 3-9> 예금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및 동 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은행명	1999.12월말		2000.12월말		2001.12월말	
	고정이하여신	비율	고정이하여신	비율	고정이하여신	비율
일반은행	446,050	13.6	319,937	8.8	126,227	3.3
특수은행	163,930	11.2	101,195	6.1	61,452	3.6
예금은행계	609,980	12.9	421,132	8.0	187,679	3.4
조흥	56,124	16.5	36,129	10.2	12,365	3.3
한빛	87,752	16.5	72,884	14.0	10,268	2.0 ¹⁾
제일	45,884	29.9	15,846	10.4	17,272	10.5
국민	50,996	11.3	8,334	7.0	40,147	3.6
신한	20,274	6.9	13,163	4.0	8,681	2.4
제주	1,598	18.9	1,331	15.6	265	2.8

*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총여신 ×100

주1): 평화은행의 이전여신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제2002-6), 2002. 2.

제 4 장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

제1절 표본자료 및 연구모형

1. 표본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제주도내 상호저축은행(3개), 신용협동조합(32개), 새마을금고(48개), 농·수협외 상호금융(122개)의 평균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표본기간은 2000년도와 2001년도이다.

자료수집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상호저축은행별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를, 한국은행 제주본부 「2000년도 제주지역 금융기관 자금조달·운용과 수지현황」을 통해 제주지역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농·수협의 상호금융에 대한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를 수집하여 계량적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외 전국과의 비교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2001년도 비은행경영통계」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통계」에서 제공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협상호금융의 전국 지표자료를 이용하였다.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과 기타 질적 측면의 분석을 위하여서는 한국은행 제주본부 보도자료 “2001년 중 제주도내 금융기관의 점포 및 인원변동 상황”에서 예금은행의 업무자동화 추진상황을 이용하였으며, 부족한 자료의 보충을 위해 해당금융기관에 전화조사로 보충하였고, 기존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이용하였다.

2. 연구모형

1) 연구모형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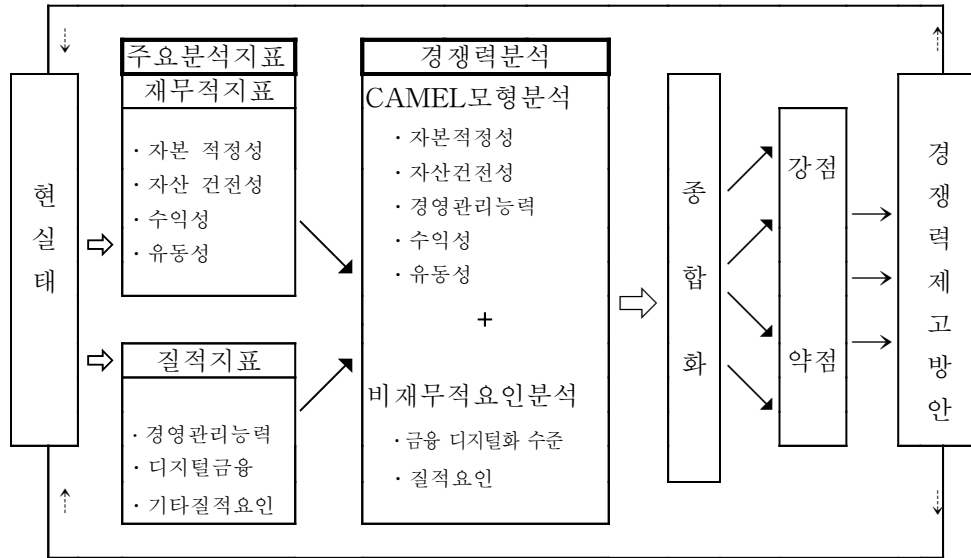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에 적합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에 대한 경쟁력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강·약점에 대한 정보의 파악이 요구된다. 경쟁력분석을 위해 전통적으로 이용되어온 방법은 재무자료를 이용한 경영분석이다. 현대에 있어서 경영분석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수준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재무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고 비재무자료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질적측면의 분석이 보완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재무적건전도 뿐만 아니라 리스크-수익관리 기법, 정보기술(IT)의 활용정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 정도와 대외적 공신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거래고객들은 안전성, 예금 및 대출이율, 대출의 편리성, 자금의 이체편리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거래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경우⁹⁾가 많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질적측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4-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재무적 자료와 질적자료를 이용하여 경영분석을 하되 먼저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모형인 카멜(CAMEL)모형을 이용하여 각 부문별평가와 종합평가를 하고, 추가적으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과 기타 질적요인을 분석하여 경쟁력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을 종합화하여 서민금융기관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9) 제4장 제2절의 2.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과 질적요인분석 참조.

<그림 4-1> 연구모형



2) CAMEL 모형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분석모형은 단순한 비율분석의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분석모형이 이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분석모형은 <표 4-1>과 같다.

<표 4-1> 경영분석 모형

분석 기법	경영분석 모형
종합평점법	Credit Scoring, CAMEL, CAMELS, CAEL 등
판별분석법	Z-Model, ZETA Credit Model 등
도산확률법	Logit : 미FRB의 SEER, 미FDIC의 SCOR 도산확률 : JP Morgan의 CreditMetrics, KMV의 EDF, CSFP의 CreditRisk CASA의 Neural Network 등

한국은행에서는 동향분석모형과 예측분석모형으로 구성된 은행경영분석 기법을 1999년에 발표했는데, 동향분석모형(CLEAR model)은 각 부분의 분석지표별 실적수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여 부문별 평점을 산정하고, 각 부문별 평점에 부문별 가중치를 감안한 종합평점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본의 적정성(capital adequacy), 유동성(liquidity), 수익성(earnings), 자산의 건전성(asset quality), 재무적위험성(risk assessment) 등의 5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또 예측분석모형(FORESEE model)은 은행의 미래 경영건전성 및 유동성악화를 예측하는 경영예측모형으로 회귀분석과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된 리스크를 리스크조정자본비율 또는 VaR(value at risk)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경영을 예측하고 있고,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카멜(CAMEL)모형을 도입하여 평가하고 있다.

카멜(CAMEL)모형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은행감독기관이 197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은행검사시스템으로서 여러 경영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CAMEL모형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과 기타 질적요인 등을 평가하여 이를 종합화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CAMEL모형에서는 경영의 주요 평가부분을 자본의 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의 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문별로 계량적 지표를 설정하여 각 지표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부문별 등급을 산출하고 이산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표 4-2>는 부문별 평가항목과 주요지표이다.

<표 4-2> 평가부문별 평가항목

부 문 별	주요평가지표	산출방법
자본적정성 (Capital Adequacy)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단순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평잔
	순자본비율	순자본/(총자산+대손충당금)
	적립금구성비율	제적립금/총자산
자산건전성 (Asset Quality)	가중무수익여신비율	가중무수익여신/총여신
	자기자본기준 가중무수익여신비율	가중무수익여신/(자기자본+대손충당금)
	무수익여신비율	무수익여신/총여신
	연체대출금비율	연체대출금/총대출금
	대손충당금비율	대손충당금잔액/대손충당금필요액
경영관리 (Management)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무상태 (부문별 등급에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값/4) -관계법규 준수여부, 내부정책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기술적자질, 리더쉽, 행정능력, 환경변화에 적응 및 대응능력 등	
수익성 (Earnings)	총자산순이익률(ROA)	당기순이익/총자산평잔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당기순이익/자기자본평잔
	수지비율	영업비용/영업수익
	총자산경비율	총경비/총자산평잔
유동성 (Liquidity)	유동성자산비율	유동성자산평잔/예수금평잔
	예대율	총대출금평잔/총자산평잔
	업무용고정자산비율	업무용고정자산/자기자본

계량지표의 평가방법은 각 평가부문의 해당 계량지표의 평가등급을 산술 평균한 평점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 4-3>과 같이 지표별 또는 부문별 평점평균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표 4-3> 평점별 평가등급

평가등급	평점범위(산술평균치)
1등급	1.0~ 1.4
2등급	1.5~ 2.4
3등급	2.5~ 3.4
4등급	3.5~ 4.4
5등급	4.5~ 5.0

여기서 각 평가부문에 대한 평가는 우선 계량지표별로 별도로 정한 등급 구분기준에 의거 등급을 정하고 각 계량지표의 등급을 산술 평균하여 정한 등급에 비계량항목의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문별 가중치는 두지 않았으며, 비계량항목의 평가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또 정보가 있다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CAMEL모형 내에서의 비계량항목의 평가는 생략하는 대신에 경쟁력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과 기타 질적요인을 분석한다.

제2절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분석

1. CAMEL모형을 이용한 경쟁력 분석

1) 등급기준과 표준지표(비율)의 설정

본 연구에서 CAMEL모형을 이용한 경쟁력분석에 사용될 평가항목의 설

정은 <표 4-2>와 <표 4-3>을 기준으로 하되 표본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항목들을 고려하여 재무비율의 계산이 가능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표 4-4>와 같이 설정하였다. 평가등급별 비율의 설정은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제시하는 2000년도 새마을금고 경영실태 평가지침을 이용하였다.

<표 4-4> 부문별 평가항목과 등급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본의 적정성	단순자기자본비율	12% 이상	9% 이상	6% 이상	3% 이상	3% 미만
	순자본비율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자산의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 무수익여신비율	1% 이하	2% 이하	3% 이하	4% 이하	4% 초과
	자기자본가중 무수익여신비율	7% 이하	13% 이하	19% 이하	25% 이하	25% 초과
	무수익여신비율	5% 이하	7% 이하	9% 이하	11% 이하	11% 초과
	연체대출금비율	8% 이하	10% 이하	12% 이하	14% 이하	14% 초과
수익성	총자산순이익율(ROA)	2% 이상	1.5% 이상	1% 이상	0.5% 이상	0.5% 미만
	자기자본순이익율(ROE)	15% 이상	12% 이상	9% 이상	6% 이상	6% 미만
	수지비율	90% 이하	92.5% 이하	95% 이하	97.5% 이하	97.5% 초과
유동성	유동성자산비율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업무용고정자산비율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80% 이하	80% 초과
	대출금비율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자료: 새마을금고연합회, 경영평가지침 및 요령, 2000, p.15.

2)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주요항목별 평균현황

분석대상은 제주지역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의 상호금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예금은행도 연구대상 서민금융기관과의 비교를 위하여 분석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석대상에 포함했으며, 평가는 계량적 지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용자료는 금융감독원의 「2001년도 비은행경영통계」,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통계」 그리고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2000년도 제주지역 금융기관 자금조달·운용과 수지현황」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금융기관별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의 주요항목에 대한 자료를 구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하고 해당통계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수로 나누어 평균한 수치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주요항목별 평균 현황을 작성하고 이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평가·분석하였다.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대하여 주요항목별 평균현황은 <표 4-5>과 같다. 동 표를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평균자산규모가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개별금융기관별 규모는 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금고당 평균자산규모가 전국에 비하여 71억원 정도 떨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은 지역내 예금은행과 비교해도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총자산 규모에서 뒤떨어지고 있으며, 농·수협의 상호금융을 제외한 서민금융기관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5>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주요항목별 평균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예금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제주지역	제주지역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총자산	704.9	281.8	1,688.9	1,762.1	155.2	186.5	201.6	130.6
총대출금	339.3	164.1(101.4)	1,132.5	1,036.3	78.1	84.0	81.5	73.3
대손충당금		0.0		162.3		1.4		1.8
유동자산합계	76.1	65.7		722.0		88.8		51.5
고정자산	17.7	-	218.0	173.8	8.0	6.8	8.3	6.4
예수금	335.7	146.8	1,486.6	1,594.3	129.4	155.1	168.2	114.3
(요구불예금)	35.7	29.1	78.9	28.2	11.3	10.3	22.5	13.4
(저축성예금)	300.0	102.2	1,407.7	1,558.9	116.2	140.8	133.8	100.6
(기타)		15.5	40.7	66.0	1.9	3.9	11.9	0.3
자기자본	17.5	13.9		66.0		20.1		12.6
총수익	83.9	76.0	163.4	184.1	15.5	19.0	-	20.3
(이자수익)	34.3	20.7	134.3	113.8	13.1	16.1	-	17.4
(비이자수익)	49.6	55.3	29.1	70.3	2.4	2.9	-	2.9
총비용	81.1	75.8	211.2	255.0	15.7	19.5	-	20.7
당기순이익	2.8	0.2	-40.6	-75.3	0.8	-0.5	-	-0.4

주)*2000년 12월말 현재 결산기준, 상호저축은행은 2001년 6월말(6월말 결산법인)기준.

*금융기관별 평균지표(평균지표=계정별 잔액/ 점포수)로 표시.

*예금은행, 상호금융은 제주도내 평균,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는 도내평균 및 전국평균을 함께 표시.

*대차대조표계정의 전국은 말잔기준, 제주지역은 평잔기준, 상호저축은행은 말잔기준임.

*예금은행통계: 신탁계정을 제외한 은행계정임.

*산출기준 기관별점포수: 상호저축은행(전국125, 제주3), 신협(전국1,317, 제주32),새마을금고(전국 1,817 제주 48), 농·수협의 상호금융(제주122), 예금은행(77).

*예금은행 및 상호금융대출잔액은 재정정책자금대출포함이며, ()안은 신용사업대출.

*유동성자산= 현금+예치금+유가증권+보험저축금-유동성자산담보차입금.

*자기자본산출: 자본총계(자본금-이월결손금±자본조정)를 자기자본으로 계상함.

자료: 금융감독원, 「2001년도 비은행경영통계」, 2001,pp.129~316.

금융감독원(전자공시), 금융기관별감사보고서, 2001.6.30.

한국은행제주본부, 「2000년도 제주지역 금융기관 자금조달·운용과 수지현황」, 2001,pp.31~42.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통계, 2001, p.57.

3) 경쟁력분석 결과

제주지역 예금은행 및 농·수협외 상호금융을 포함하여 서민금융기관에 대하여 카멜(CAMEL)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본의 적정성부문

<표 4-6> 자본적정성에 대한 경쟁력정도 비교

부 문	항 목 (비율)	예금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비 율	항 목 등 급	부 문 별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 문 별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 문 별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 문 별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 문 별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등 급
자 본 적 정 성 ①	단순자기 자본비율	24	5		4.9	4	3.0	3	3.7	4	2.5	3	10.7	2	1.5	2	9.6	2	1.5	2
	순자본비율				3.7	2			5.1	1			9.4	1			9.8	1		

*단순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평균(또는 말잔)×100

*순자본비율=순자본/(총자산+대손충당금)×100

*순자본1=자본총계+대손충당금-부실대출(회수의문채권의75%+추정손실분류의100%상당액)

자본적정성부문의 분석은 금융기관이 현재 및 장래의 영업활동에 원활한 자금의 지원과 향후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문으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은 일시적인 영업손실을 입더라도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며 그로 인하여 안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²⁾

자본적정성에 대한 분석결과 <표 4-6>에서와 같이 총자본대비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인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신용협동조합이 10.7%로 가장 높

1)순자본=자본잉여금+제적립금±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당기순이익±자본조정+대손충당금-부실대출(회수의문분류채권의 75%+추정손실분류채권의 100%)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상기와 같이 계상함.

2) 김시담, 「통화금융론」(서울 : 박영사, 2001), p.209.

고 다음이 새마을금고로 9.6%이고 농·수협상호금융이 4.9%, 상호저축은행이 3.7%로 나타나고 있다. 예금은행은 2.4%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서민 금융기관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자본비율은 새마을금고가 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적정성부문의 평점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나란히 평점 1.5로 2등급을 나타내고 있고, 상호저축은행이 평점 2.5로 3등급, 농·수협의 상호금융이 평점 3.0으로 3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자산의 건전성부분

<표 4-7> 자산건전성에 대한 경쟁력정도 비교

부 문	항 목 (비율)	예금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비 율	항 목 등 급	부 문 별 평 점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 문 별 평 점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 문 별 평 점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 문 별 평 점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 문 별 평 점	등 급
자 산 건 전 성 ②	가중무수익 여신 비율					3.0	3			15.1	5			5.0	5			2.9	3		
	자기자본기준 가중무수익 여신비율					26.6	5	2.5	3	69.0	5	5.0	5	21.3	4	4.0	4	14.6	3	3.0	3
	무수익여신 비율					4.9	1			29.2	5			9.5	4			7.5	3		
	연체대출금 비율					6.4	1			32.3	5			11.9	3			11.0	3		

주) <표 3-8>과 <표 4-5>를 기초로 산출

*가중무수익여신비율=가중무수익여신/총여신×100

*자기자본기준가중무수익여신비율=가중무수익여신/(자기자본+대손충당금)×100

*가중무수익여신= 고정분류채권의20%+회수의문채권의 75%+추정손실채권의100%

자산건전성부문의 분석은 금융기관자산의 질적수준과 운용의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부문으로 손실위험도 가중무수익여신비율, 자기자본가중 무수익여신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연체대출금비율을 평가한 결과 <표 4-7>에서와

같이 농·수협의 상호금융이 무수익여신이 거의 없어서 평점 2.5점으로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새마을금고가 평점 3.0, 신용협동조합이 평점 4.0,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이 평점 5.0으로 자산건전성이 가장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3) 수익성부문

<표 4-8> 수익성에 대한 경쟁력정도 비교

부 문	항 목 (비율)	예금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평 점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평 점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평 점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평 점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평 점
수 익 성 ③	ROA	0.4	5	3.3	0.1	5	4.6	-4.2	5	5.0	-0.2	5	5.0	-0.3	5	5.0
	ROE	16.0	1	3	1.4	5	4.6	-114.0	5	5.0	-2.4	5	5.0	-3.1	5	5.0
	수지비율	96.6	4		99.7	4		138.5	5		102.6	5		101.9	5	

*ROA=당기순이익/총자산평균잔(또는 말잔)×100

*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평균잔(또는 말잔)×100

*수지비율=총비용/총수익×100

종합적인 경영성과와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부문은 <표 4-8>과 같이 농·수협의 상호금융이 평점 4.6이고 나머지 서민금융기관들은 평점 5.0으로 나타나 예금은행을 제외하면 총자산순이익률(ROA)이나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수지비율 모두가 5등급으로 제주지역서민금융기관 모두가 최하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수익성부문에서 예금은행이 평점 3.3이고, 농·수협의 상호금융이 평점 4.6으로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표 4-5>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금은행과 농·수협의 경우 예대비율이 높고³⁾, 비이자수익도 상

3) 예대비율: 예금은행101.1%, 상호금융111.8%(신용사업예대율69.1%), 상호저축은행65%, 신용협동조합54.1%, 새마을금고64.1%

호저축은행이나, 신한, 새마을금고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4) 유동성부문

<표 4-9> 유동성에 대한 경쟁력정도 비교

부 문	항 목 (비율)	예금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등 급
유 동 성 ④	유동성 자 산 비 율	22.6	3			44.7	1			45.2	1			57.2	1			45.0	1		
	고정자산 비 율	101.1	5	3.6	4			1.5	2	263.3	5	2.6	3	33.8	1	1.6	2	50.7	2	1.6	2
	대출 금 비 율	48.1	3			58.2	2			58.8	2			45.0	3			56.1	2		

*유동성자산비율=유동자산합계/예수금×100
 *유동자산=현금+예치금+유가증권+보험저축금-유동성담보차입금
 *업무용고정자산비율= 업무용고정자산/자기자본×100
 *대출금비율=총대출금/총자산×100

유동성분석은 고객의 예금지급청구 등 채무의 상환에 대비한 유동성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유동성에 관한 부문은 <표 4-9>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동자산비율, 고정자산비율 그리고 대출금비율을 분석한 결과 유동성자산비율이 농·수협의 상호금융이 44.7%, 상호저축은행이 45.2%, 새마을금고가 45.0%이고 신용협동조합이 57.2%의 유동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모두 1등급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금은행의 경우는 22.6%로 유동자산비율에서 3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자본대비 고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업무용고정자산비율은 상호금융의 경우는 자료가 세부구분 없이 일반자산으로 표기되고 있어서 고정자산비율을 산출할 수 없었

으며, 신용협동조합이 33.8%로 1등급, 새마을금고가 50.7%로 2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예금은행은 101.1%로 5등급 상호저축은행이 263.3%로 5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자기 자본에 비하여 업무용고정자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자산대비 대출금비율은 농·수협의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이 58%선을 유지하고 있고, 새마을금고가 56.1%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이 45.0%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은 수익의 원천인 대출비율은 낮고 자산의 대부분을 유동성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유동성관리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동성은 수익과 서로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적정한 수익성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5) 경영관리능력부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4-10> 경영관리능력에 대한 경쟁력정도 비교

부문	항 목 (비율)	예금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등 급	비 율	항 목 등 급	부문별 등 급	
																	평 점
경영관리 ⑤	(①+②+③+④)/4																
종합	(①+②+③+④+⑤)/5																

*경영관리능력=(자본적정성등급+자산적정성등급+수익성등급+유동성등급)/4

경영관리능력은 본 CAMEL모형에서는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상의 부문별 등급을 부문별 가중치를 두지 않고 평균을 산출한 결과 <표 4-10>과 같이 농·수협외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각각 3등급, 상호저축은행이 4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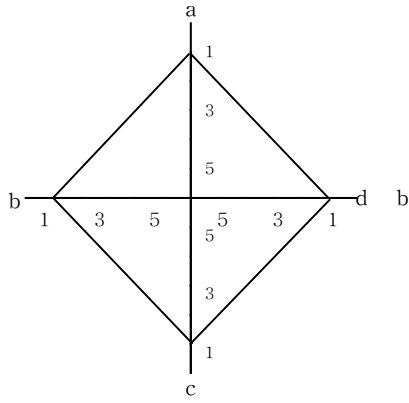
종합등급은 새마을금고가 종합평점 3.0으로 3등급, 농·수협외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이 각각 평점 3.2로 역시 3등급,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이 평점 4.0으로 4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종합등급은 3등급에서 4등급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도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에서는 경영관리능력은 나머지 4가지요인 즉,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지표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부문만을 대상으로 도형화하여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은행감독규정(동 규정 제34조)에서는 경영실태평가(CAMEL)결과 종합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분의 평가가 4등급이하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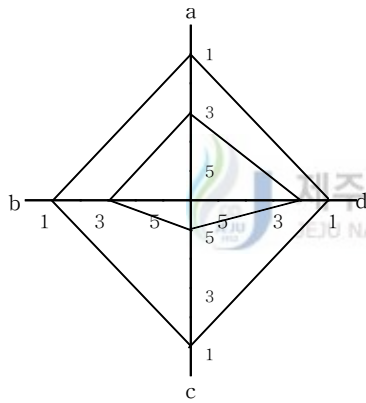
<그림 4-2> 이상적인 경쟁력 도형 및 경쟁력 실태도

<이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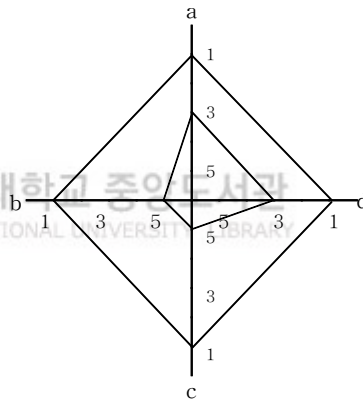


- a : 자본의 적정성 수준
- b : 자산의 건전성 수준
- c : 수익성 수준
- d : 유동성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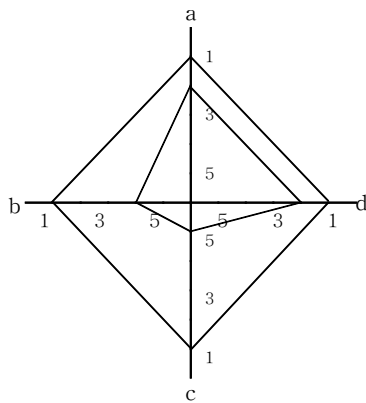
<농·수협상호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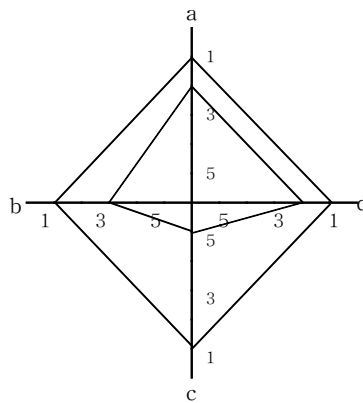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림 4-2>는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수준을 x축과 y축에 각각 a, b, c, d로 표시하고 a, b, c, d 각각의 점에서부터 1등급씩 5등급으로 경쟁력실태를 도형화 한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그림 4-2>의 이상형과 같을 것이다.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새마을금고가 그 중에는 이상형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제주지역의 서민금융기관들은 자산의 건전성과 수익성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부분에서 1등급은 없으며, 특히 수익성부분은 모두가 5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2.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과 질적요인분석

CAMEL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더하여 경쟁력비교에 빠져서는 안될 디지털금융의 수준과 기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질적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화 수준은 금융기관별로 계량적자료를 토대로 등급화하고 기타 질적인 것은 기존에 선행연구가 많기 때문에 기존연구자료에서 경쟁력요인을 도출하고 제시한다.

1)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

최근 정보기술(IT)의 눈부신 발달은 점포위주의 금융거래에서 PC나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확대를 가져오는 등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디지털금융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것⁵⁾으로 한국은

5) M. J. Cronin, *Banking and Finance on the Internet*, ed, 1998.

행 공동망이나 어음교환소에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화폐(EDI: electronic data exchange)나 리모트뱅킹(remote banking)을 소매결제수단으로 한다. 전자화폐는 발행자에게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플라스틱에 내장한 IC칩(integrated circuit chip) 또는 개인컴퓨터에 일정한 화폐가치를 저장한 다음 통신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아직까지는 그 사용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트뱅킹은 금융기관과 고객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전화나 팩스, 비디오폰, 개인용컴퓨터 등 전자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각종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시스템을 총칭한다.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이나 폰뱅킹, PC뱅킹, 인터넷뱅킹이 모두 리모트뱅킹에 포함된다.

이러한 디지털금융은 공간적·시간적인 제약을 초월하여 경제주체들간에도 대금지급과 수취를 가능케하여 공간적·시간적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면 금융시장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자금의 수요자는 금융기관에 직접가지 않고도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손쉽게 비교하여 자신이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예금인출에 대한 예측과 자산포트폴리오(asset portfolio)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금공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금융을 활용하면 금융거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⁶⁾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정보취득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6) 거래형태별 건당 거래비용

거래형태	점포	수표	전화	ATM	인터넷뱅킹
건당 거래비용(단위:달러)	1.07	0.95	0.45	0.27	0.01

자료: Booz · Allen & Hamilton(1997.4)

정부에서도 금융결제원에 금융공공망을 계속 확충하여 디지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는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등이 있다.

전자공동망은 기존의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한 홈/펌뱅킹(home/firm banking)시스템의 24시간 운영망으로 고객이 홈/펌뱅킹을 할 때 타행공동망과 CD공동망의 운영시간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체한도를 타행환(건당 1억원) 및 CD공동망(건당 1만천원)에 비해 건당 5억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금융공동망은 기존의 송·수금 수단인 타행환 및 CD/ATM에 비해 이용시간의 제약이 없는 24시간 운영체제이고 건당 이체한도의 큰 폭 확대 및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고객이용편의가 크게 개선되어 기업 및 개인의 펌뱅킹,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디지털화의 수준을 예금은행과 비교 분석하여 현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려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예금은행의 경우 점포망 축소 및 자동화 추세에 대응하여 365일 자동화코너 및 CD/ATM 등 자동화기기는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제주도내 예금은행의 업무자동화 추진상황을 보면, <표 4-11>에서와 같이 자동화코너 및 자동화기기는 각각 118개소 및 420대로 2000년 말 대비 7개소 및 20대가 증가하였다.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자동화기기 설치현황을 보면 <표 4-12>에서처럼 단위 농협의 경우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이 가능하고 CD/ATM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텔레뱅킹을 제외하고는 대출전용카드까지 고객의 취향에 맞게 금융

정보화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아직 정보화의 정도가 많이 뒤떨어져 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은 중앙회차원에서 신용카드업무를 위한 제휴계약단계에 있다.

<표 4-11>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자동화기기 설치 추이

(단위: 개소, 대)

년도 기기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증감	
				2000	2001
자동화코너	100	111	118	11	7
CD/ATM	311	346	377	35	31
통장정리기	66	54	43	-12	-11

자료: 한국은행 제주본부(보도자료), 2001년 중 도내금융기관의 점포 및 인원변동상황, 2002.2.

<표 4-12> 도내 서민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2001. 12월말 현재)

기관별	종류	인터넷	텔레뱅킹	CD/ATM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전용	비고
		뱅킹				(체크카드포함)	카드	
지방은행		○	○	○	○	○	○	제주패스론
상호 금융	농협	○	○	○	○	○	×	
	수협	○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	웹스피드론
신용협동조합		×	×	×	×	×	×	
새마을금고		○	×	○	○	○	○	스피드마이 너스대출

자료: 해당금융기관에 전화조사

도내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2001년 말 현재 CD/ATM기를 설치한 곳은 모두 34개 금고이며, 앞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급증추세와 금융기관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도 자동화기기의 설치나 신용카드업무를 서민금융기관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용카드는 국가의 조세정책과 고객의 다양한 필요에 의하여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의 신용카드 가입

자수나 가맹점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카드이용실적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⁷⁾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제주도내 지방은행 및 농·수협외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의 디지털화의 수준을 <표 4-12>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설치, 신용카드 및 대출전용카드에 대한 시스템구비 및 사용여부에 따라 인터넷뱅킹에서부터 대출전용카드사용까지의 6개의 요인 중 이들 모두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를 1 등급으로 하고 그 중 하나의 요인이 부족할 때마다 한 등급씩 하향평가 하여 최하 5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는 <표 4-13>과 같다.

<표 4-13>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금융디지털화 수준

평가등급	1	2	3	4	5
금융기관	지방은행	농·수협외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주)2001년 말 현재기준.

2) 질적요인에 대한 분석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질적인 것으로는 기업의 소유구조, 관리능력, 서비스의 정도, 고객의 니즈에 대응능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질적요인에 대한 측정이나 개관적인 평가가 상당히

7) 신용카드가입자·가맹점 증가율 및 카드이용실적 증가율(%)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가입자수	32.7	27.9	10.5	4.1	-8.7	6.9	34.6	42.3
가맹점수	27.4	25.6	23.5	-15.7	7.8	25.6	17.5	18.0
카드이용실적	45.2	31.9	30.5	8.4	-10.1	-2.6	120.8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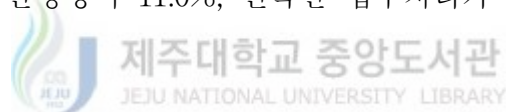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제주본부, 제주지역 경제동향, 각 호.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경쟁력요인변수를 도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남용식(1994)의 연구⁸⁾를 검토해 보면, 가계금융고객과 기업금융고객의 은행선택행위에 관한 비교에서 고객들이 거래은행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이용의 편리성, 친절한 고객서비스, 수익성(이자율), 순으로 주요속성을 들고 있다.

권관민(1997)의 연구⁹⁾에서도 거래은행을 선택한 이유로 거래가 편리하기 때문에 73.3%, 은행의 이미지가 좋아서 7.6%, 신속한 업무처리가 5.5%로 나타나 거래의 편리성이 거래은행을 선택하는 주요요인으로 들고 있다.

권관민은 같은 연구에서 표본의 주거은행 변경 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도 거래의 편리성이 51.7%, 높은 이자율이 18.2%, 쉬운 대출이 5.5%, 예금의 안정성이 11.0%, 신속한 업무처리가 8.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1979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연구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김춘식(1998)의 연구¹⁰⁾를 검토해 보면, 부산광역시 소재 새마을금고 거래 회원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안전성이 거래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 김향숙(2000)의 연구¹¹⁾에서도 울산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고

8) 남용식, “가계금융고객과 기업금융고객의 은행선택에 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55.

9) 권관민, “고객만족을 통하여 은행발전에 기여할 금융기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31~32.

10) 김춘식, “지역 밀착경영을 통한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확보전략”, 「조사연구」, 제8집, 새마을금고연합회, 1998. p.222.

11) 김향숙, “지역금융기관의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74~76.

객을 대상으로한 저축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으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찰해 보면, 신종국(2000)은 거제도 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¹²⁾에서 새마을금고의 서비스 속성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요인과 전반적인 만족관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원의 친절정도를 들고, 다음으로 예금이자율을 들고 있다.

박근(2001)의 연구¹³⁾를 살펴보면, 제주시내 J은행 거래고객을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은행이용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출가부의 결정, 상담직원의 친절, 대출절차, 서류의 간소화 등 금융업무처리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점포의 입지, 자동화기기 및 은행서비스 순으로 들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표 4-14>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용 또는 거래의 편리성이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이율(수익률), 이용 또는 거래의 편리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객만족요인으로 는 직원의 친절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들고 있다.

12) 신종국, “새마을금고 점포선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56~62.

13) 박근,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은행의 소매금융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87~88.

<표 4-14> 질적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결과

시대적 상황별	연구자(년 도)	요인별 순위
외환위기 이전	남용식(1994)	①이용의 편리성 ②친절한서비스 ③높은 수익률(수익률)
	권관민(1997)	①거래의 편리성 ②은행의 의미지 ③신속한 업무처리
외환위기 이후	김춘식(1998)	①안전성 ②이율(수익률) ③가까운거리(거래의 편리성)
	김향숙(2000)	①안전성 ②높은이율 ③대출의 용이(이용의 편리성)
	신종국(2000)	①직원의 친절 ②예·적금이율 ③상품의 다양성, 업무처리 신속성
	박근(2001)	①신속한 업무처리 ②점포의 입지(거래의 편리성) ③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질적요인을 도출하면 <표 4-15>과 같이 안전성, 예·적금 및 대출이율, 점포의 입지 그리고 서비스의 수준이 바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질적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5> 경쟁력을 좌우하는 질적요인

경쟁력요인	내 용
· 안전성	예·적금또는 투자에 대한 안전한 보장
· 수익률	예·적금 및 대출이자수준과 투자수익률
· 점포의 입지	이용의 편리성, 거래의 편리성 (가까운 거리 : 지역밀착)
· 서비스의 수준	신속한 업무처리, 친절한 서비스

예·적금에 대한 안전성, 예·적금 및 대출금이율, 점포의 입지, 서비스

의 수준 등이 바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인 핵심역량¹⁴⁾이라 할 수 있다.

핵심역량으로서의 안전성은 금융기관에 예·적금 또는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 건실한가 하는 거래금융기관 구성자산의 건전성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유동성 그리고 거래금융기관이 도산했을 때 얼마만큼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예금보장의 여부와 한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금융자산의 건전성은 부실자산의 유무에 따라 부실자산을 적게 보유할수록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부실자산이 많을수록 안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표 3-8>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현황에서 총대출금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부실여신비율을 기준으로 상대적 비교우위를 찾는다면 농·수협의 상호금융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순이다. 상호저축은행이 그 중에는 안전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동성은 <표 4-5>와 <표 4-9>의 유동자산규모와 유동자산비율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은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 상호저축은행이 유동성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예금의 보장여부와 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으며, 예금보험가입기관은 아니지만 농·수협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각각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보호금액은 예금상품별로 보장되는 상품과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 있으며 서

14) 핵심역량이란 어떤 기업이 가진 경쟁기반을 구성하는 특유의 경영자원을 말하며, 핵심역량은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결정하며 경쟁자와의 비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민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 중에 공제(보험)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적금이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보장 한도는 원리금을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로 하고 있다. 때문에 예금보장에 대해서는 보험공사가 보장한다는 것과 농·수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보장한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안전성에 대한 경쟁력은 해당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의 부실자산을 갖고 있느냐 하는 자산의 건전성이 안전성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다음은 수익률로 대별되는 예·적금 및 대출이율이 높고 낮음에 대한 경쟁력정도는 금융기관의 수익재원의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의 수익재원이 대출이자만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된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조달금리를 높게 책정하여 예·적금이율을 높게 운용하거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예대마진폭이 작아짐으로써 적정수준의 수익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충하기 위해 리스크가 높은 수익증권 등의 투자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예·적금이율 및 대출이율에서 금리경쟁력을 갖추려면 예대마진 이외의 다양한 수익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금 및 대출이율의 경쟁력은 바로 수수료수익 등 비이자수익의 확보에 달려 있다. 재무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한 비이자 수익현황은 <표 4-5>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주요항목별 현황에서 보면, 비이자수익은 농·수협의 상호금융이 72%이고, 예금은행이 59.1%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비이자수익이 낮아 예금이자 및 대출금이자에 대한 금리경쟁력이 농·수협의 상호금융이나 예금은행보다 떨어지고 있다.

농·수협의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2004

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비과세혜택¹⁵⁾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갖고 있다 하겠으나 그것이 완전한 금리경쟁력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가까운 거리와 이용의 편리성으로 대별하여지는 금융기관의 입지에 따른 경쟁력은 고객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 하는 것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이 거래고객과 인접한 곳일수록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2001년도 말 현재 지점 및 출장소를 포함한 금융기관별 점포수는 농·수협이 상호금융이 가장 많은 120개소이며, 새마을금고가 46개소, 우체국이 39개소, 신용협동조합이 32개소, 지방은행 점포가 27개소 그리고 시중은행 점포가 24개소로 점포수로 하면, 농·수협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순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단순히 많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더구나 과도한 점포수의 증가는 과도한 비용의 증가 등 경영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점포입지는 단순한 장소적 개념에서 벗어나 근접성과 편리성의 제고라는 측면¹⁶⁾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고, 동종의 금융기관끼리 서로 협력관계를 가짐으로서 그 수가 많을수록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금융기관 각각은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서로간의 협력관계도 갖고 있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은 기관별로 적정인원을 확보하고 교육과 능력개발로 무장하여 고객의 니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정도와 정보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수준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경쟁력을 좌우하는 질적요인으로는 안전성, 수익률, 점포의 입지와 서비스수준 등이며, 안전성은 금융기관의 구성자산의

15) 예·적금 2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주민세면제.

16) 공병욱,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은행기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63.

건전성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예·적금 및 대출금이자율에 대한 경쟁력은 수수료수익 등 다양한 비이자수익원 확보에 따라 결정되고 그 외 거래고객과의 근접성 등 점포의 입지와 신속한 업무처리 등 서비스수준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¹⁷⁾

3. 분석결과

CAMEL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은 자본적정성부문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2등급, 농·수협의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이 3등급으로 나타났고, 자산건전성부문은 농·수협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3등급, 신용협동조합이 4등급, 상호저축은행이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수익성부문은 농·수협의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모두가 5등급인 반면 예금은행은 3등급으로 나타났다. 유동성부문은 농·수협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2등급으로 나타났고, 상호저축은행이 3등급, 예금은행이 4등급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경영관리부문은 농·수협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각각 3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저축은행이 4등급으로 나타났다. 종합등급 역시 농·수협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각각 3등급, 상호저축은행이 4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의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는 농·수협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2등급으로 나타나 그나마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비교지표 6개요인 중 어느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디지털금융이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질적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안전성 및 예·적금 및 대출금이자율에 대한

17) 그러나 이러한 질적요인에 대한 분석은 연구의 자료수집이 어렵고 수집된 자료도 표본에 따라 그 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경쟁력은 농·수협이 상호금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그림 4-2>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의 적정성부문,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모든 부문에서 다른 서민금융기관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자산의 건전성과 수익성부문은 상당히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전성도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 4-13>에서 보듯이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도 낮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자본이 총자본대비 3.7% 밖에 안되고 자금의 조달과 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자금의 조달 면에서 보면 조달자금 대부분이 조달금리가 높은 저축성예금이 차지하고 있다. 총예수금 중 1.7%가 요구불예금이고 97.8%가 저축성예금이 차지하고 있다. 운용 면에서도 대출비율이 58.8%이므로 나머지는 현금 또는 예치금으로 운용되거나 유가증권 등 리스크가 큰 투자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출로 운용되고 있는 자산도 <표 3-8>에서 보듯이 이자를 받지 못하는 무수익여신을 포함하는 연체대출금 등 부실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수익은 적게 발생하고 부실채권에 비례하여 대손충당금설정 등 비용발생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 4-5>에서 보듯이 수수료수익 등 비이자수익은 적고 수익의 대부분을 대출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산건전성의 악화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수익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자본적정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2)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의

적정성부문이나 유동성부문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표 4-7>에서 보듯이 무수익여신비율이 각각 9.5%와 7.5%를 보유하고 있어서 보통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은 아주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금조달부문에서 조달원가가 높은 저축성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대마진이 떨어져 적정수준의 이윤확보가 어려우며,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수익의 대부분이 대출이자수익으로부터 발생하는데 <표 4-9>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출금 구성비율이 신용협동조합이 45%, 새마을금고는 56.1%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수익의 대부분을 대출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이들 금융기관은 이자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무수익여신으로 인하여 연체대출금구성에 따른 대손충당금설정비용 등 비용발생은 많아지므로 수익성이 낮아져 수지비율은 떨어지고 총자산순이익률(ROA)이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은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양호한 편이나 신용협동조합은 아주 취약하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신용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표 4-5>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이자수익의 비중이 낮다. 이는 디지털화 수준이 낮아 금융결제원가입으로 오는 기회요인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거나 디지털화 수준은 양호하나 아직 수수료수익 등 비이자수익 창출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 농·수협·상호금융

농·수협·상호금융은 <그림 4-2>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본의 적정성부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은 무수익여신이 거의 없어서 가장 양호편이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자기자본가중 무수익여신비율이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이자수익의 경쟁력은 있으나 수익성부문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서민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취약하다.

농·수협외 상호금융은 <표 4-7>에서 보듯이 무수익여신을 포함하는 연체대출비율이 6.4%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비이자수익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7%나 되어 <표 4-15>에서 도출되는 질적 경쟁력요인인 안전성과 예금 및 대출이율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이 높다. 그러나 자금조달에 있어서 총예수금 중 요구불예금 비중이 19.8%로 다른 서민금융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저축성예금이 70% 가까이 점유하고 있어 저축성예금비중이 높은 편이며, 총자산대비 대출비율이 58.2%이므로 대출비율 또한 낮은 편이다.

제3절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

앞서의 CAMEL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부문의 경쟁력은 다른 서민금융기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디지털화수준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질적요인에 대한 경쟁력 역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저축은행은 29.2%에 이르는 고정이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대손상각·자산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해야하며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실대출을 사전

예방하고 연체대출금을 축소함으로써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자산의 건전성이 제고되면 안전성도 따라서 제고된다.

수익성제고를 위해서는 58.8%인 대출비율을 카드론대출이나 특화된 대출시장 개척을 통해 증대시켜야 하며,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저축성예금보다는 조달원가가 비교적 적은 요구불예금을 많이 유치하여 적정 예대마진을 확보하고 수익구조를 수수료수익 등 비이자수익으로 다양화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원의 확보로 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수익성의 제고는 잉여금의 적립 등으로 이어져 자기자본을 건실하게 하여 자본적정성의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수익원의 확보는 예·적금 및 대출금의 금리경쟁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하는 원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가입에 따른 새로운 결제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각종 공공요금의 수납 및 급여이체, 신용카드 및 대출전용카드와 연계서비스를 통한 자금이체 및 결제계좌유도로 요구불예금의 구성비율을 높여 나가야 하고 CD/ATM기 설치 및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을 높여 수수료수익 등 다양한 수익원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디지털금융은 창구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창구업무의 시간을 줄여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수익성 또는 리스크관리업무에 더 치중하게 할 수 있으며,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함께 정보의 활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의 디지털 수준은 강화되어야 한다.

2.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제고방안

CAMEL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본의 적정성부문에서 농·수협외 상호금융이나 상호저축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으며 자산의 건전성부문은 상호저축은행보다는 비교우위

에 있으나 농·수협이 상호금융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수익성도 농·수협이 상호금융보다 떨어지고 매우 취약한 편이다. 금융의 디지털화수준은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높은 수준이나 신용협동조합은 매우 취약하다. 질적요인에 대한 경쟁력도 상호저축은행보다는 높지만 농·수협이 상호금융보다는 낮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수익여신을 포함하는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대손상각 또는 자산의 유동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여야 하며 신규대출의 발생에서부터 관리단계에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실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체대출금을 최소화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출금증대를 통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현재 45%와 56.1%의 대출비율을 최대한 높여 이자수익을 증대시켜야 하고 대출자산의 건전화를 통해 대손충당금 설정비용 등 비용발생을 줄여야 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저축성예금보다는 조달원가가 비교적 적은 요구불예금을 많이 유치하여 적정예대마진을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수익구조를 수수료수익 등 다양한 수익구조의 확보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원을 창출하여 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디지털금융 수준을 높이고 고객의 니즈에 대응한 다양한 결제수단의 활용으로 금융결제원가입에 따른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디지털화 수준은 높으나 아직 수수료수익 등 비이자 수익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결제원망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모색하여 수익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3. 농·수협 상호금융의 경쟁력 제고방안

CAMEL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자산의 건전성부문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으나 자본의 적정성부문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보다 경쟁력이 낮다. 수익성부문은 다른 금융기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지만 역시 취약하다.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과 질적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수협의 상호금융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농·수협의 상호금융은 수익증대와 출자금의 증대 등으로 자기자본을 적정수준까지 확충하여야 하며, 대출금증대 등을 통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58.2%인 대출금을 카드론 대출이나 대출확대 전략을 통하여 대출비율을 높여 이자수익을 확대해야 하고 자금조달부문에 있어서도 70%에 달하는 저축성예금의 비중을 더 낮추고 조달원가가 싼 요구불예금의 구성을 높여 적정마진의 확보와 함께 디지털금융을 통한 수익창출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 5 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무적자료를 이용한 경영분석과 비재무자료 중에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과 기타 질적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농·수협이 상호금융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평가모형인 카멜(CAMEL)모형을 이용하여 재무적자료를 토대로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및 경영관리능력을 각 부문별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부문별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CAMEL모형을 이용한 경영분석에 더하여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과 기존연구를 토대로 질적요인에 대한 경쟁력요인을 도출하여 종합화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CAMEL모형의 분석결과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의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부문의 경쟁력은 이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낮은 수준이다. 특히 수익성부문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들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자본적정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자산건전성의 경우 농·수협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우위에 있다. 수익성은 농·수협의 상호금융이 우위에 있으며, 유동성은 농·수협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다. 그 결과 경영관리능력 및 종합결과는 새마을금고가 가장 우위

에 있고 다음으로 농·수협이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이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 수준과 질적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디지털화 수준은 농·수협이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양호한 편이나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기존연구자료를 중심으로 경쟁력요인변수를 도출한 결과 안전성, 수익률, 점포의 입지 그리고 서비스의 수준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질적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안전성은 자산의 건전성 확보로부터 나오며 수익률로 대표되는 예금 및 대출이율의 경쟁력은 수수료수익 등 다양한 비이자수익원의 확보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농·수협이 상호금융이 이러한 질적 경쟁력이 다른 서민금융기관보다 높다. 그 외에도 점포의 입지나 서비스의 수준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호저축은행은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부문 등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산의 건전성과 수익성부문은 아주 취약하다. 자산건전성이 취약하므로 안전성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은 연체대출금에 대한 대손상각·자산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방법 및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실대출을 사전예방하고 연체대출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산건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수익성제고를 위해서는 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요구불예금비중을 높여야 하고, 디지털 금융의 수준을 높여 수수료수익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의 확보를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자본의 적정성이나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

한 편이나 자산의 건전성과 수익성부문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자산건전성이 취약하므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경쟁력도 농·수협외 상호금융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디지털금융의 수준은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높은 편이지만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는 대단히 취약하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무수익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대손상각이나 자산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신규대출에서 회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수익성의 확보를 위해서 현재의 낮은 대출비율을 높여야 하며 디지털화 수준을 높여 각종 결제업무 및 복합상품의 개발로 수수료수익의 확보 등 비이자수익의 확보를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디지털화 수준을 높여 금융결제원가입으로부터 오는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농·수협의 상호금융은 자기자본을 총자본에 비해 적게 보유하고 있어 자본의 적정성부문이 취약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무수익여신은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자산은 건전한 편이고 따라서 안전성은 높은 편이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건전성평가항목 중에 자기자본기준 무수익여신비율이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수협의 상호금융은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증액운동과 함께 적정배당 등을 통한 이익잉여금의 적립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대출금증대를 통한 이자수익의 확대 등 수익관리를 통하여 수익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이용 가능한 재무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본금융기관들의 재무자료가 충분히 공시되지

않아 자료수집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나마 수집된 재무자료도 과거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질적부문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의 어려움으로 해서 질적요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경제적 측면 외의 각 금융기관들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보다 다양한 자료수집을 통한 충분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실행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제주지역 서민금융기관들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및 논문

- 강병호, 「금융기관론」, (서울 : 박영사, 2001).
- 김시담, 「통화금융론」 (서울 : 박영사, 2001).
- 곽창렬, 「신용협동조합운동」, (서울 : 카톨릭출판사, 1982).
- 금융감독원, 「2001년도 비은행경영통계」, 2001. 11.
- 농협협동조합, 「경영통계」, 2000.
- 박정식·박종원, 「현대투자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01).
-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35년사」, 1989.
- 새마을금고연합회제주도지부, 「제주도새마을금고25년사」, 1997.
- 새마을금고연합회 연수원, 새마을금고 교재, 1999.
-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통계」, 2001.
- _____ , 「경영평가지침 및 요령」, 2000.
- 신용협동조합제주도연합회, 「제주도신협30년사」, 1995.
- 이충열·김재필·이영수, 「디지털금융」, (서울 : 도서출판홍, 2000).
- 장영광, 「경영분석」, (서울 : 무역경영사, 2001).
- 조희영, 「금융제도론」, (서울 : 민영사, 2000).
- 한국은행, 「은행경영분석 기법」, 1999.
- _____ , 「금융시스템 리뷰」, 제6호, 2001.1.
- 한국은행제주본부, 「2000년도 제주지역 금융기관 자금조달·운용과 수지
현황」, 2001.4.
- _____ , 「제주지역 경제동향」, 2001.1.
- _____ , 「제주지역 경제동향」, 2001.6.

- 한국은행제주본부, 「제주지역 경제동향」, 2002.1.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동향 : 분석과 전망」, 2001.
- 공병욱,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은행기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권관민, “고객만족을 통하여 은행발전에 기여할 금융기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경수, “상호신용금고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춘식, “지역밀착경영을 통한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확보전략”, 「조사연구」, 제8집, 새마을금고연합회, 1998.
- 김향숙, “지역금융기관의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남용식, “가계금융고객과 기업금융고객의 은행선택행위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류재식, “금융산업변화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박근,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소매금융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신종국, “새마을금고 점포선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한영규, “금융환경의 변화와 신용협동조합의 경쟁력강화방안”,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탁현, “상호신용금고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금융감독원, 연차보고서, 200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제2002-6호, 2002.2.
 _____, 금융감독정보, 제2002-14호, 2002.4.
 _____, 금융통계월보, 2002.1.
 _____(보도자료), 2001년 은행경영분석결과, 2002. 4. 15.
 한국은행제주본부(보도자료), 2001년 중 도내 금융기관의 점포 및 인원변동
 상황, 2002.2.1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탁통계자료, 2000~2001.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2.2.
 한국은행제주본부, 2001년 말 현재 제주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2002.2.
 Andersen Consulting 금융빅뱅전략본부·류동순역, 「IT혁명과 금융기관의
 생존전략」, (서울: 미래와 사람들, 2001)

2. 외국문헌 및 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ronin. Mary J., *Banking and Finance on the Internet*, ed, 1998.
 Dominc Casserley, *Facing Up to Risks* Mckiney & Company, Inc, 1993.
 Marshall. C., and Siegel. M, *Value at Risk: Implementing a Risk
 Measurment Standard*, The Wharton School, 1999.4.
 Anthony M. S., *Commercial Bank Risk Managment: an Analysis of the
 Process*, The Wharton School, 1995.
 Booz · Allen & Hamilton , *A Huge Perception: Gap Between Japanese
 and American/ European Banks Regarding Internet Banking*,
 April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for Raising the Competitive Power of Mutual Savings Banks, Credit unions, and Mutual Credits in Jeju-do

Suk-Ho Le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ong-Won Park

This study evaluates 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earnings, liquidity, and management quality of mutual savings banks, credit unions, and mutual credits in Jeju-do on the basis of financial data using the management assessment, CAMEL, and then grades all the five sectors separately and collectively as well. Furthermore we derives competitive factors on the basis of the level of digital banking and other qualitative aspects. The overall results are as follows.

The analysis of the CAMEL model shows that the competitive power of mutual savings banks, credit unions, and mutual credits in Jeju-do is low in light of the ideal standard in the aspects of 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earnings, and liquidity. In particular, they record a remarkably low competitive power in the aspect of earnings. Considering the relative competitive power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Jeju-do, however,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nd credit unions

have a competitive edge over other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the capital adequacy, and mutual savings banks and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have a competitive edge over other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the asset quality. While mutual credits have a competitive edge in the field of the earnings, mutual credits, mutual savings banks, and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have a competitive edge over mutual savings banks in the aspect of the liquidity.

As a result, in the aspects of management quality and overall rankin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re the most competitive, mutual credits and credit unions take the next place, and mutual savings banks take the last place.

Such results indicate that the mutual savings banks, credit unions, and mutual credits in Jeju-do should solve the following tasks in order to increase their potential for future competitive power.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mutual savings banks is going down in all the aspects of 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earnings, liquidity, etc., and especially very weak in the aspects of capital adequacy and earnings, which leads to the lowering of safety. Therefore, they need to take up a drastic measure for clearing off junk bonds - such as by liquidating overdue bank loans as dead loans - prevent bad debts by improving the credit inquiry system and credit risk management system, and increase their asset quality by minimizing overdue loans.

For improving earning power, they should increase the proportion of lending, raise the ratio of the payable deposits on demand in raising the capital, and secure various and stable profit resources through banking digitalization.

Credit unions and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show a moderate level in the aspects of capital adequacy and liquidity, but not in the

aspects of asset quality and earnings. Also, the weakness of asset quality makes their safety deteriorating worse than that of mutual credits.

Accordingly, credit unions and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should not only settle insolvent obligations such as non-current overdue loans through the amortization of bad debts or asset liquidation, but also improve their asset quality through thorough the risk management from a new lending to its payback. For their steady profitability, they need to increase the lending ratio higher than the present level and secure earning resources other than interest earnings such as commission charges by creating settlement service and composite banking commodities through banking digitalization. Particularly, credit unions need to utilize the chance of entering the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by establishing a highly digitalized banking system.

Mutual credits retain the low ratio of equity capital, so that they are weak in the capital adequacy, thereby causing the lowering of their competitive power. On the other hand, they have few non-current bad loans and thus their asset quality is relatively healthy. As a result, they have a high level of safety, but the low ratio of equity capital makes lower the ratio of non-current loan to their own capital, one of the asset quality evaluation items. Consequently, it is desirable that mutual credits expand their equity capital by reserving retained earnings through reasonable income dividend, along with raising the amount of contribution by association members, and that they increase the earning ratio through earning management - for example, increasing interest earning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lending amounts.